만고에 우뚝한 한라의 영산 / 어리인 정기로 빚어낸 인걸 / 세기는 부른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진리의 탐구자 / 오, 우리는 문명의 선구자 //
한라산 허리에 바람이 일며 / 태평양 기슭에 물결이 칠 때 / 가슴이 뛰는다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문화의 창조자 / 오, 우리는 역사의 건설자 //
진실 봉공 협동과 진취 / 우리의 갈 길은 여기에 있다 / 헤치고 나가자
제대 건아야 / 오! 우리는 민중의 지휘자 / 오, 우리는 조국의 계승자

제주대신문

진리 정의 창조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news.jejunu.ac.kr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3년 3월 20일 수요일 제888호

식상한 출범식, 특색 살린 행사로 변화를

13일 총학생회 출범식에서 유병선 총학생회장과 홍성훈 부회장이 고사를 지내고 있다.

천편일률적 행사… 학생회 정책·비전 발표장 바람직
중앙자치기구 출범식만 3일간… 통합해 효율성 높여야

학생자치기구 출범식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학생자치기구 출범식이 보다 지성인답게 생산적인 행사로 꾸며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맘때면 매일 치러지는 중앙자치기구별 출범식을 단일화하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길라잡이 총대의원회의 출범식을 시작으로 12일 청춘걸고 총여학생회, 13일 좋은일만 총학생회까지 학생자치기구 출범식이 3일에 걸쳐 연이어 열렸다. 또 지난 15일 경상대학을 시작으로 간호대학, 인문대학, 생명자원과학대학 등 대부분의 단과대학 학생회 출범식도 진행됐다.

하지만 중앙자치기구 출범식이든 단과대학 학생회 출범식이든 행사에서 학생회 간부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하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 행사의 전부라 천편일률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중앙자치기구 출범식에 참석한 한 학생회 간부는 "출범식은 국가로 치면 대통령 취임식에 견줄 수 있는 학생회의 큰 행사인데 학생회 간부들을 위한 단합대회로 전락한 현실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흥미 위주의 행사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학생자치기구의 비전과 방향을 임기 초에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출범식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수의과대학의 한 학생은 "매년 똑같은 행사를 진행하는데 중앙자치기구, 단과대학 학생기구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개최되다보니 학생들을 위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출범식을 한번에 열고 절약한 비용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지 기자

초·중등 교사 임용시험에 146명 합격

초등교사 93명 합격
중등은 5년새 최다 53명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졸업생들이 교원임용시험에서 146명의 학생들이 최종합격했다.

교육대학(학장 김익상)은 2013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임용시험에 93명의 졸업생이 합격했다.

전공별로는 △초등윤리 7명 △초등국어 7명 △초등수학 10명 △초등사회 9명 △초등과학 9명 △초등체육 6명 △초등음악 7명 △초등미술 6명 △초등실과 7명 △초등교육 5명 △초등영어 11명 △초등컴퓨터 9명이다. 올해는 작년 (77명 합격) 대비 16명이 더 합격했다.

또한 사범대학(학장 송일상)은 2013학년도 중등 교사 임용시험에서 공립 45명, 사립 8명 등 총 5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 같은 합격자 수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44명, 2010년 46명, 2011년 27명, 2012년 40명이다.

2013학년도 전공별 합격자는 △국어교육 10명 △영어교육 9명 △일반사회교육 2명 △지리교육 2명 △수학교육 13명 △물리교육 4명 △생물교육 7명 △교육대학원 6명(국어교육 1명, 체육교육 2명, 음악교육 2명, 미술교육 1명) 등이다.

송일상 학장은 "합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업동아리 신입회원 모집

취업전략본부, 오는 25일까지
증권반·영상반 등 11개 분야

취업전략본부에서(본부장 임재윤) 취업동아리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재학생이나 휴학중인 학생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25일 오후 7시까지 취업전략본부를 방문하거나 이메일(cnucareer@jejunu.ac.kr)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학생은 취업동아리 해당분야에 관심이 있는 자로, 외국어 능력 우수자와 성적 우수자를 우대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동아리는 기존동아리 7개, 신규 동아리 4개로 총 11개의 동아리이다.

신규회원 모집 동아리와 인원은 다음과 같다. △증권반(골든크로스) 15명 △영상반(FRAME) 15명 △대기업반(Prep) 6명 △마케팅반(JIBC) 약간명 △무역유통반(Lloyd) 자체모집 △7급 견습직원반 20명 △해외취업반(프론티어) 약간명 △금융반 20명 △농협반 20명 △공기업반 20명 △사회복지사반 20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업전략본부(전화 754-230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기념패·시계 등 대학 기념품 판매 개시

각종 행사시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 주문·제작 가능
넥타이·스카프·수건 등으로 품목 다양화해야

학생회관 2층 문구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념패.

생활협동조합(이사장 김석종 학생처장)이 우리대학의 건물과 마스코트를 활용한 다양한 기념품을 출시, 학생회관 2층 문구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기념품 가운데는 우리대학의 건물을 활용한 기념패와 시계가 선보여 눈길을 끈다. 이들 기념품은 캠퍼스 본관과 인문대학, 중앙도서관, 법학전문대학원, 아라뮤즈홀 건물을 디자인한 그림을 도자기나 크리스털 액정에 삽입해 만들었다.

기념패(9만9000원)의 경우 납작한 원모양의 도자기 그릇에 대학 건물을 삽입해 투명 받침대를 부착했고, 시계는 미니게일탁상시계(3만8500원)와 미니탁상시계(4만1800원), 미니하트시계(3만8500원), 중(4만4000원), 대(9만9000원) 크기에 역시 캠퍼스 건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대학 마스코트와 대학건물을 넣은 마우스패드(3300원), 카드지갑(5500원), 여권케이스(5500원), 에코백 중(6600원), 대(7700원) 등의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

생협 관계자는 "앞으로 대학내 각종 행사시 기념품이나, 개인 선물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이 가능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구성원들은 값싼 가격에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품목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학교방문을 기념할 수 있는 넥타이와 스카프, 티셔츠, 제주대학교 올레를 지도화한 수건과 대학 명소 등을 소재로 한 물품 등의 값싸고 질 좋은 아이디어 기념품으로 우리대학을 알리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의=754-2392~3, 2453

봄의 전령 개나리 '활짝' 19일 오전 학생생활관 진입로에 개나리가 노란꽃을 활짝 피워 화사한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일본문화연수 참가자 27일 마감

오는 7월 고베대학서 실시
신청서류 소속학과로 제출

국제교류본부(본부장 강영훈)에서는 2013년도 '하계 일본어·일본문화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소속학과 사무실로 참가신청서, 홈스테이 신청서, 추천서, 여권사본, 대학 성적증명서 및 일본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등의 일본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일본 고베대학에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일본어 중상급 수준(일본어능력검정 N2 정도)의 학부생이거나 일본 유학 경험이 없고 유사한 일본 연수 참가 경험이 없는 자이다. 항공비용, 숙박비용 등의 참가비 면제된다. 단 해외 여행보험(질병·상해·배상책임)의 가입비는 참가자가 개별부담 해야 한다. 기타 서류는 제주대 홈페이지 제주대소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대와 고베대학은 2004년 2월 학술교류협정을, 같은해 11월에는 교수 및 학생교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문의=국제교류본부(754-2197)

제주대신문 61기 수습기자 모집

"청춘을 가장 멋있게 불사르는 방법"

다시 오지 않을 대학생활을 위하여

입사혜택

-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장학금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 원고료(기사 성과에 따라), 취재 수수료(매월) 지급
- 현직 기자들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도, 보도사진 등)
- 실제 언론사에서 활용하는 편집 시스템을 통한 편집교육
- 언론사 취업 적극 알선
-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일본, 중국, 필리핀, 미국, 라오스, 몽골 등)

모집대상 : 2013학년도 학부 신입생(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 2012학년도 입학생(재학생)
원서마감 : 3월 29일(금) 오후 6시
접수방법 : 제주대미디어(news.jejunu.ac.kr) 자유게시판에서 제주대신문 입사지원서 다운로드, 출력 후 작성
제주대신문 편집국에 방문해 직접 제출
기타서류 : 입사지원서와 함께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성격, 입사지원 동기 등 기술) 1부 제출
장 소 : 대학원동 3층 언론미디어센터 내 제주대신문
문 의 : 제주대신문 편집국(전화 064-754-2277~9)

사 설

학생자치기구 출범식 관행 개선 필요

잃어 버렸다고 생각했던 봄이 아라캠퍼스에도 개나리꽃과 새내기 학생들의 입학으로 다시 찾아왔다. 캠퍼스는 학기 초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젊은 열기의 생동감이 넘쳐난다. 또한 요즘 총학생회를 비롯한 총대의원회·총여학생회·동아리연합회 등 다양한 학생자치기구 및 단과대학별, 학과별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이 이곳 저곳에서 열린다. 첨단 IT 시대에 한국인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외국학생에게는 매우 이색적으로 느낄 수 있는 돼지머리를 준비한 고사들을 지내기도 한다. 세대의 변화인지 몰라도 금년에는 떡과 과일, 돼지머리 대신에 케이크에 불을 켜고 진행되는 출범식도 목격되는 등 변화의 조짐도 있다.

학과 출범식에 매해 참석하면서 좀 아쉬운 점들이 있다. 우선 학생자치기구별, 대학별, 학과별로 출범식이 진행되어 너무 산만하고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다. 총학생회를 비롯한 중앙위원회 간부들은 70여개 학과를 순회하면서 인사를 해야 하는 시간의 낭비성이 보인다. 학생자치기구 전체, 그리고 학과별이 아닌 단과대학별로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두 번째는 출범식에 참석하는 자들은 대부분 조직의 간부들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출범식이란 일정한 편제를 갖추어 조직된 단체가 만들어져 그 활동을 시작하는 공식적인 모임인데 그들만의 다짐만 보이고 많은 일반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해 보인다. 물론 오래 전에도 각 대학 총학생회의 정치성 구호를 부르짖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는 학생으로 구분되어 반쪽자리 출범식이 있었던 시대도 있었다. 대학의 탈정치 바람과 함께 대학 본연의 가치에 관심을 돌리면서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지만 학생들이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방안 모색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출범식도 대학문화의 하나라고 한다면 지금의 출범식이 좀 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들이 묻어나는 대학문화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도 필요하다. 출범식 이후 각종 노래와 춤이 일색인 장기자랑이 단과대학별로 이뤄지는데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좀 더 다양하고 특색이 있는 행사를 기획하여 새로운 대학문화의 발전의 면모를 보여 줬으면 한다.

대학문화는 캠퍼스 주체자인 대학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소비되어지고, 또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곤 한다. 이런 대학문화를 주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창의적이고 진취적 소명으로 이끌 책임이 있는 총학생회를 포함한 학생자치기구의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학생활동 일정표는 언제 발표되나

모든 일에는 계획이 필요하다. 계획이 치밀하고 빈틈없이 세워졌을 때 추진하는 일들이 원활하게 이행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게 마련이다.

대학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에 앞서 학사일정표가 작성되어 대내외에 공지된다. 대학에서 제작한 달력에도 학사일정들이 명기된다. 그러한 학사일정표에 따라 각 부서에서는 업무계획을 세우고 제반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교수들의 강의계획서도 학사일정표에 따라 작성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들과 관련된 일정은 상당히 늦게 발표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축제가 언제인지, 단과대학별 체육대회는 언제인지 개강 후 3주째인 3월 하순에 접어드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학생활동 일정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교수들이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강의계획(발표 일정, 휴강에 따른 보강계획 등)을 세우지 못함으로써 원활한 수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으며, 학생들 개개인도 공부나 기타 활동과 관련된 일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가. 도대체 그동안 학생자치기구들은 뭘 한 건가. 11월에 선거를 치르고 나서 학생회 임원을 꾸리고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는데도 3개월 남짓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무엇을 했다는 건가. 겨울방학 중의 학생자치기구 간부 수련회에 가서는 무엇을 했는가. 눈앞의 출범식 일정과 프로그램만 논의해 놓고 친선도모나 했다는 건가.

이런 문제가 빚어지는 데에는 학생복지과 등 학생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 축제 같은 큰 행사를 언제 치를 것인지에 대해 총학생회와 미리 협의를 갖고 확정해 줌으로써 다른 학생자치기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들도 일정을 빨리 확정하여 공지토록 유도해야 마땅하다. 학생활동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업 등의 다른 학사일정과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와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학생활동 일정발표가 뒤늦게 이뤄지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요, 이번 학생자치기구나 지금의 학생복지과만 문제가 있는 것도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관행(慣行)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관행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방기할 것인가.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바꾸고 고침으로써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글로컬 시대의 뉴리더'와 '혁신하는 명품 대학'은 구호만 외친다고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나날이 달라져야 한다.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제도 '인기'

군 복무 기간 학점취득 일거양득에 수강생 16.4% 증가
2007년 국방부와 학점인정 협약 체결… 학기당 3학점 인정

이러닝 과목인 유철인 교수의 '제주4·3의 이해

군 복무 중에 학점을 취득하는 제주대 병역복무 수강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정보통신원(원장 김일환)에 따르면, 2013학년도 1학기에 85명으로 2012년도 1학기에는 73명보다 16.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병역복무 수강생은 2008년에는 5명, 2009년 19명, 2010년 70명, 2011년 61명, 2012년 73명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2011년의 경우에는 개설강좌수가 9개에서 7개로 줄면서 인원이 감소하기도 했다.

제주대는 지난 2007년 국방부와 이러닝(E-Learning)을 통한 '군 복무 중 학점인정 협약'을 체결한 후 약 1년간 시범운영해 2008년에는 '군 학점 강좌'를 정식으로 개설한 바 있다. 학점 취득은 1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이다.

병역복무 수강생이 늘고 있는 것은 병역 중에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원 관계자는 "국방부 차원에서 군복무중 학점취득 제도 이용을 권장하는 것이 병역복무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김지현(환경공학과 1)씨는 "남자로서 군대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군복무중 이러닝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으니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개인을 발전시킬 수 있으니 2년간의 학업 공백기간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하은 기자

우소영·양지현 씨 사범대 독후감대회서 금상

송지운·김세윤씨 등 은상
지난 18일 시상식

지난 18일 진행된 '2012학년도 2차 사범대학 독후감 콘테스트' 시상식에서 송일상 사범대학장이 우소영 학생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2012학년도 2차 사범대학(학장 송일상) 콘테스트'의 시상식이 지난 18일 사범대학 2호관 3327 세마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은 지난달 26일 열린 '2012학년도 2차 사범대학 콘테스트' 결과이다. 콘테스트는 총 55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사범대학 학생들의 책 읽기를 통해 폭넓은 사고력과 풍부한 교양을 쌓아 예비교사로서의 교육적 자질 함양을 위해 개최됐다.

시상자는 총 18명이며, 금상은 15만원, 은상은 12만원, 동상은 8만원, 장려상은 4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한편, '사범대학 콘테스트'는 여름·겨울방학마다 개최하고 있다.

시상자는 다음과 같다. 금상 - 우소영(국어교육과 3), 양지현(컴퓨터교육 2), 은상 - 송지운·김세윤(국어교육전공 2), 한우진(지리교육전공 3), 김지원(생물교육전공 3) 동상 - 고주영(영어교육과 2), 고주연(국어교육과 4), 김훈성(생물교육전공 3), 김지환(컴퓨터교육과 2) 학생 장려상 - 한민아(영어교육과 2), 방슬기(일반사회전공 3), 황보희원(국어교육과 3), 송무경(지리교육전공 3), 오현우(물리교육전공 3), 김성욱(물리교육전공 3), 정진이(수학교육과 2), 현명진(생물교육전공 3).

김동현 기자

도의회서 실무수습과정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고호성) 원생들이 제주도의회에서 실무교육을 통해 수습과정을 밟는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는 도의회 의원회관 정책자료센터에서 법전원 실무수습생 10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이번 과정은 오는 5월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다. 대학원생들이 직접 조례안을 검토해 지방입법 과정을 체험한다. 또한 입법의 바탕이 되는 입법실무에 대한 현장강의와 본회의와 상임위 참관 등의 현장실무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 과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지방입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법을 공부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우수한 법률 인재들이 지방법제 분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의회는 대학원생의 참신한 생각을 반영해 지방법제 발전과 지방입법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 국제저널 논문 공모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소장 고창훈)는 오는 5월 31일까지 세계섬학회와 공동 발간하는 <WEIS(World Environment and Island Studies)> 국제저널 3권 1호에 게재할 논문을 공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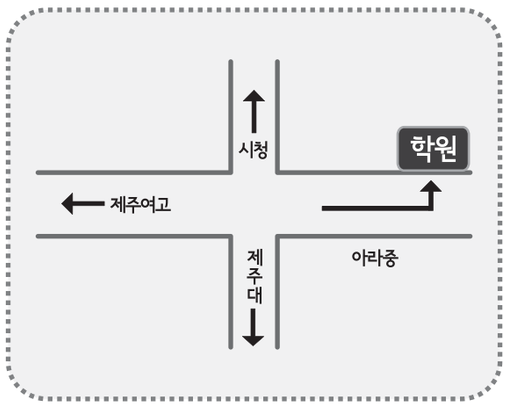
원고 모집분야는 △세계환경 △기후변화 △녹색성장 △해양문화 △행정 △세계섬학 등이다.

원고 작성은 <WEIS> 논문작성 영문규정(세계섬학회 www.peaceisland.asia 또는 www.weii.jejunu.ac.kr 참조)을 따라야 한다.

원고는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 이메일(mrsom@jejunu.ac.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WEIS 편집위(754-2318)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향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주말교육가능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33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59주년을 맞이하여,
제33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3년 6월 10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제출

5. 발표 : 제주대신문 896호(2013년 7월 3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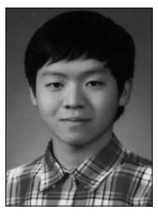
사람들

현해남 교수
감귤박람회 조직위원장 선출

현해남(식물자연환경전공) 교수가 지난 15일 '2013 서귀포세계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조직위원회는 농업인 단체, 생산자단체, 학계, 각종위원회 및 단체 대표, 관광단체, 상공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총 43명으로 구성됐다.

진석휘·허지원
대통령 과학장학생에 선정



진석휘(생명공학부 1 위)씨와 허지원(컴퓨터공학과 1)씨가 대통령 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됐다.

대통령 과학장학금은 핵심 과학자를 양성키 위해, 4년간 대학등록금과 학기당 200만원의 학업장려금이 지급된다.

대통령과학장학생은 수학·과학 교과 학업성적과 과학 활동 실적 우수성을 검증하는 1단계 서류 심사와 2단계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진씨는 제주지역 방사선 조사 및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고 과학동아리활동 발표대회와 제주공동탐구토론대회에 참가해 입상했다.

허씨는 천연연료로서 '우도땅콩의 가능성 탐색을 위한 자연탐사', '전자기력 실험을 통한 전기 발생 기계 개발에 대한 탐구' 등 고교 재학 중 학교 과학반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조성윤 교수
'창가학회와 재일한국인' 등 발간

조성윤(사회학과) 교수가 SGI를 믿는 재일한국인을 연구한 '창가학회와 재일한국인'을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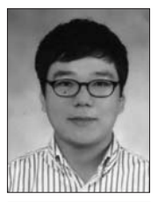
또한 조 교수는 39명의 SGI신자들과의 인터뷰 녹취록을 추려 '숙명 전환의 선물'도 함께 내놨다.

조성윤 교수와 김미정(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씨가 1999년부터 약 14년에 걸쳐 연구한 끝에 내놓은 책이다.

'창가학회와 재일한국인'은 192쪽, '숙명 전환의 선물'은 264쪽, 한울아카데미.

신규 임용 전임교원(기금교수) 프로필

최준혁(의학과) 심장학 △학사 : 강원대 의학과 △석사 : 강원대학교 의학과 △논문 : 경피적 심폐체외순환을 통한 전격성 쇼크 치료 연구



박신영(의학과) 호흡기-알레르기 △학사 : 조선대학교 의학과

나수영(의학과) 소화기위장관 △학사 : 울산대학교 의학과 △석사 : 울산대학교 의학과 △논문 : ERCP 시술과 연관된 장천공 환자에게 중증 임상경과의 예측인자

부선진(의학과) 소화기위장관 △학사 : 조선대학교 의학과 △석사 : 울산대학교 의학과 △논문 : 췌장 전이성 종양의 임상적 특징

이무숙(의학과) △학사 : 계명대학교 의과학 △석사 : 연세대학교 영의학과 △논문 : 경피적 심폐체외순환을 통한 전격성 쇼크 치료 연구

수영부, 한라배 전국수영대회서 22개 메달 획득

금11·은5·동6… 조관학 4관왕 등 전종목서 좋은 성적
"힘든 여건에도 평소에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한 성과"

수영부(지도교수 제갈윤석)가 지난 4일부터 5일간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8회 제주 한라배 전국수영대회'에서 22개 메달을 획득했다.

(사)대한수영연맹 주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제주대 수영부는 금 11, 은 5, 동 6개의 메달을 따내는 성적을 거뒀다.

조관학(체육학부 2)은 남자대학생부 다이빙 종목에서 △스프링보드 3M △플랫폼다이빙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 이중훈과 짝을 이룬 △싱크로다이빙 3M △〃 10M에서 1위를 차지해 4관왕을 달성했다. 또 박효진(체육학부 1)은 여자대학생부 다이빙 종목에서 △스포링보드 1M △〃 3M △플랫폼다이빙에서 1위에 올라 3관왕을 차지했다.

개인혼영 200M와 400M에서 2위에 입상한 김탁규(체육학부 4)는 "이번 대회에서 메달을 따게 되서 너무 기쁘지만 기록들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면서 "메달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기록을 조금씩 단축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제갈윤석(체육학부) 교수는 "작년 남학생들에 이어 여학생들이 종합 3위를 차지해 굉장히 감격스럽고 평소에 열심히 연습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학생들의 경우 외도 수영장에서 연습하다보니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상황에서도 공부도 성실히 하고 경기성적도 잘 나오는 학생들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수영연맹에서 주관하는 제주 한라배 전국수영대회는 2006년을 시작으로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등록은 유년부부터 일반부까지 선수등록을 한 자에 진행되며 경기종목에는 경영(競泳), 다이빙, 수구, 싱크로가 있다.

첫번째줄 왼쪽부터 김탁규 선수, 제갈윤석 교수, 두번째줄 이윤미·임진희·박효진·박희·이주영 선수, 셋째줄 박태규·류대현 선수

이번 대회 성적은 다음과 같다.

▶다이빙 △조관학 1위(스프링보드 3M, 플랫폼다이빙) 2위(스프링보드 1M) △조관학·이중훈 1위(싱크로다이빙 3M, 10M) △박효진 1위(스프링보드 1M, 3M, 플랫폼다이빙) ▶경영 △이윤미 1위(자유형50M, 100M) △임진희 1위(평형 200M) 2위(평형 100M) △이주영 1위(자유형 800M) 3위(자유형 400M) △박희 2위(접영 100M) 3위(접형 50M) △김탁규 2위(개인혼영 200M, 400M) △류대현 3위(접영 200M) △이윤미 이주영 박희 임진희 3위(계영 400M) △이주영 임진희 박희 이윤미 3위(계영 800M) △이주영 임진희 박희 이윤미 3위(혼계영 400M)

김하은 기자

백두학원 학생들 재일제주인센터 방문

<재일한국인 민족학교>

재일 중학생 38명 수학여행
제주대병원·도내 관광지도 견학

일본 오사카에 소재한 재일한국인 민족학교인 백두학원(이사장 김성대) 학생 38명이 지난 15일 제주대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중학교 2학년으로 이뤄졌으며, 수학여행 도중 제주대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제주도내 관광지를 비롯해 재일제주인센터와 제주대학교병원 등을 견학했다.

김성대(77) 이사장은 1946년 일본에서 태어났다 잠시 아버지의 고향인 제주 도두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그는 제주가 또 다른 고향이다.

지난 15일 백두학원 학생들이 재일제주인센터를 찾아 재일제주인 전시실을 둘러봤다.

한편, 백두학원은 지난 2011년 무궁화 훈장을 받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출신 고(故) 조규훈 씨에 의해 설립된 학교다. 1946년 '건국 공업학교', '건국 고등 여학교'로 개설돼 1951년 정규 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1977년에 한국계 학교로 기치를 밝혔으며, 현재 건국유치원, 건국소학교, 건국중학교, 건국고등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교원임용고시 대비 프로그램 개강

사범대·인문대 학생 등 참여
임용고시 합격률 제고 목표

교육학과(학과장 김성봉)가 주관하는 '제2차 교원임용고시 대비 프로그램' 입학식이 지난 12일 교양동 4232호에서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임용고시 제도가 대폭 변화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이수자들의 임용고시 합격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학논술 파트와 인적성, 면접 및 수업시연 파트로 크게 2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각 파트는 화요일과 목요일 야간에 2시간씩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이번 1학기에 15주간 운영된다. 각 학기의 15주차에는 수료식이 예정돼 있으며 수료증도 수여한다.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교양동 강의실에 교원임용고시 대비프로그램 개강식이 열렸다.

입학식에는 사범대학 21명, 인문대학 5명 등 28명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문의=교육학과(전화 754-4895)

외국어교육원 오는 28일 모의 토익

외국어교육원(원장 허윤덕)에서 오는 28일 오후 6시 10분부터 2시간 동안 외국어교육원에서 2013년 제1회 모의토익을 실시한다.

오는 22일까지 외국어교육원 3층 행정실에 접수하며 학생, 교직원, 일반인 등 선착순으로 300명을 모집한다. 응시료는 5000원이다. 특히 2012년 6차과정으로 겨울방학 외국어특별강좌 수강자 중 출석률 80%인 자는 무료로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정규토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모의토익은 외국어교육원에서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확인하고 성취감을 주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외국어교육원 행정실 (754-2291~2292)로 문의하면 된다.

수자원연구단 '수자원 선진화…' 워크숍

제주수자원연구단(단장 양성기)은 21일 오후 2시에 제주칼호텔 로즈룸에서 '제주도 수자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21회 물의 날을 기념해 수자원의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된다. 이혜령·류상봉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이 '국토해양 R&D 연구관리 개선 방향'과 'KICTEP 기술인증제도' 등의 특별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김형수(인하대)교수의 '기후변화 대비 국가 물안보 및 습지 기능평가', 박남식(동아대) 교수의 '해수침투로부터 과잉 양수정을 보호하기 위한 주입정의 효과 분석'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그 외에도 종합토론 등이 이어진다.

이명곤 교수 철학 강의

이명곤(철학과) 교수가 오는 20일 저녁 7시부터 불기도서관에서 '신곡-연옥편' 강의를 한다.

불기도서관은 제주치과의사회에 마련돼 있다. 문의=제주치과의사회(749-6418)

제주햄, 매주마다 목요장터 연다

택배로 주문 가능
이익금 일부는 장학금

제주햄이 매주 목요일 중소기업종합기업센터 2층에서 목요장터를 개설한다.

목요장터에는 햄과 소시지, 돈가스, 육포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방문구입외에도 택배로 제품을 살 수도 있다. 이외에도 사전주문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제주햄은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활용한 상품 브랜드이면서 제주산 청정 돼지고기를 내세워 제주 돈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으로 제주대가 진행하는 사업이다.

한편 제주햄은 지난 2011년 제주대와 (주)제주돈육수출센터간의 (주)제주햄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설립됐다. 제주햄은 제주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가공제품 개발 및 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햄은 품질관리 및 제품 개발과 판매를 전담한다. 이익의 일부는 장학금으로 기부된다.

또한 제주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 내 제주햄스쿨을 열어 직접 소시지를 만들고 먹어보는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제주의 자랑거리인 흑돼지로 직접 소시지를 만들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의 음식에 대한 소중함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주)제주햄(전화 064-794-7017)

김하은 기자

김용택 시인, 20일 문화광장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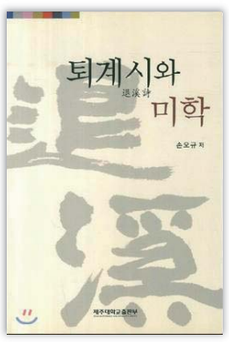
'제주대문화광장'에 오는 20일 오후 2시 아라뮤즈홀에서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 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은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쓰다'라는 주제로 작가와 청중들이 직접 시를 낭독하며 좀 더 깊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김 작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농촌 시인이다. 우리의 뿌리이면서 이제는 낯선 풍경이 되어버린 시골 마을과 자연을 소재로 소박한 감동이 묻어나는 시와 산문들을 써 왔다.

김용택 작가는 전북작가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전북 임실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 064)754-2275 팩스 064)702-0549 http://press.jejunu.ac.kr
제주대학교 출판부



퇴계시와 미학 退溪詩

| 손오규 저 | 441페이지 | 20,000원 |

"돌을 지고 모래를 파서 스스로 집을 삼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니 다리가 많구나
한 평생 한 움큼 산 샘물 속에 머물러
강호의 물이 얼마인가는 묻지도 않는도다"

퇴계는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시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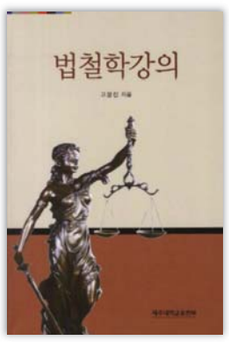
『퇴계시와 미학』은 퇴계시를 번역하고 높은 예술성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저자는 퇴계시가 가지고 있는 번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재현하려고 노력했다. 학문적 함축성과 철학을 통해 완성된 인간존재, 근원으로서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 대자연의 질서와 조화에 동참하는 감동 등 다양한 퇴계시의 미학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탐구

| 정광중 · 김민호 · 오성배 · 황석규 · 고광명 | 320페이지 | 13,000원 |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세계 사람들이 말춤 열풍에 빠져들고 있다. 싸이 돌풍을 우리 모두가 예견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도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기로에 서 있음을 예견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속도가 시시각각 빨라지고 이미 가속도가 붙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탐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성장 · 발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교육의 실상을 다룬 연구서이다. 다문화교육 전문가와 제주 지역 연구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내용을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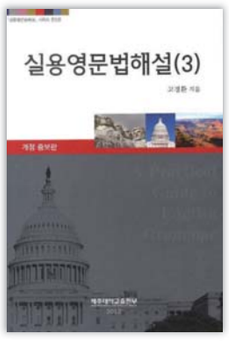
법철학강의

| 고봉진 지음 | 291페이지 | 15,000원 |

"삶을 떠난 진리는 없다."

저자는 법철학을 공부하면서 '학문의 즐거움'을 향유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법철학의 추상성'에 상심하곤 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 헌법재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헌법재판 특히 위헌법률심판은 법규범이 헌법에 비추어 정당화되는지 여부를 살피는 제도라는 점에서 '법규범의 정당화'라는 법철학의 주요문제와 맞닿아 있었던 것이다.

『법철학강의』 정법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올바른 법에 대해 탐구하고 모색하는 법철학 강의에 도움이 되도록 작성한 교재다. 도덕규범과는 달리 강제규범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올바름에 대한 근거제시가 아주 중요한 법규범에 대해 배워나간다.



실용영문법해설(3) 『실용영문법해설』 시리즈 전3권

| 고경환 지음 | 458페이지 | 20,000원 |

"The sun sets regularly on the Union Jack these days,
but never on the English language."
"요즘은 영국 땅에서 어김없이 해가 지지만,
영어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해가 지는 일이 결코 없다."

『실용영문법해설』 제3권. 영문법 범주가 갖는 형태, 의미, 기능 등을 상세하게 다루는 실용영문법해설서이다. 영어를 능동적으로 구사하면서 타인의 말이나 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충분한 예문을 동원하여 다양한 영문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

| 김진옥 지음 | 294페이지 | 20,000원 |

"경제학은 사회가 가치가 있는 재화들을 생산하기 위하여 희소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생산된 재화들을 상이한 사람들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 폴 사뮤엘슨(Paul Samuelson)

『전략과 정보의 경제학』은 게임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보경제학을 안내한 책이다. 게임이론이란 전략적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주체들이 최적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본적인 게임이론에 이어서 관련 정보경제이론이 소개된다.

해기사 및 해양경찰을 위한 해상 수색 및 구조론

| 최찬문 · 안장영 공저 | 314페이지 | 13,000원 |

선박에서는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나 해양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지리적인 격리성, 해상환경의 특수성 및 작업의 전문성 등으로 인하여 조난자를 수색하고 구조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해상 수색 및 구조론』은 체계적인 해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업무를 안내한 책이다. 해양경찰을 위한 수험생 및 현장 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IMO 수색 및 구조'를 다루고 있으며 상선 수색 및 구조, 우리나라에서 제정한 수난구호법을 정리하여 수록했다. 또한 관련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 및 약어 설명이 들어있다.

취업을 Job아라

⑦ 유망 중소기업 탐방 / (주)한국비엠아이

제주도내 업체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 어떤 중소기업이 있는지 잘 모른다. 이에 제주대신문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으뜸'으로 선정한 도내 업체인 (주)한국비엠아이를 소개한다.

제주이전 후 연매출 30배 성장… 사원복지에도 최선

의약품은 현대 인간에게 없어서 안 되는 물건이다. 약을 통해 사람들의 아픔을 낫게 하고, 암과 같은 중증 병들도 치료해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병들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으로 만든 약보다는 외국 약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다. (주)한국비엠아이(대표이사 이광인)는 '약을 만드는 것이 아닌 꿈을 만든다'는 이념으로 많은 사람에게 건강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 다양한 약들을 제조하고 있다.

40여 가지의 의약품 제조… 매출의 8~10% 연구비로 투자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주)한국비엠아이는 2005년 9월 인하제약을 인수하면서 제주로 이전했다. '제약과 바이오텍의 순차적 융합을 통해 실현 가능한 제약회사로서의 성장을 지향한다'는 모토로 새롭고 다양한 의약품들을 연구·개발·제조·판매하고 있다. 신약 개발 뿐만 아니라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의약품들의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다.

(주)한국비엠아이는 이런 노력을 통해 아네럼(철 결핍 치료제), 옥트스타틴(말단비대증 치료제) 등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시켰다. 또 하이랙스(기존 히알우로니다제 제품보다 순도를 높여 안전성을 크게 개선시킨 고순도 원료)를 세계 최초로 고순도 제품 개발 허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팜시정750 mg(대상포진 바이러스 치료제), 트리마펜(해열제) 등 17개의 일반의약품과 27개의 전문의약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제품들을 출시할 수 있었던 배경은 매출의 8~10%를 연구비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늘 연구를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또 신약 출시뿐만 아니라 정부사업, 특허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인터류킨-2(균주 특허) 외 4종의 특허를 갖고 있으며, 의약품 허가는 전문의약품 30종, 일반의약품 58종을 갖고 있다. 또 의료기기 관련 특허 1종도 갖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이노비즈기업을 인증 받았다. 또 IL-2 임상승인 병원 IRB 승인, 제주공장 GMP 승인 등도 받았다. 더불어 2011년 6월에는 후발성백내장치료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과제를, 2010년 11월에는 항당뇨 천연물 의약 지식경제부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주)한국비엠아이는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들을 생산해 매년 10~20억원 가량의 연매출이 신장했다. 2005년 9월 제주도로 이전했을 때 13억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4억원의 연매출을 냈지만 2011년 기준 115억원의 연매출을 기록해 약 30배 정도 성장했다.

제주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기기 유지비가 도외보다 훨씬 줄었다. 공기를 빨아들여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공조 기계의 필터를 3년 동안 교체하지 않았다. 이는 이전하기 전에 6개월~1년마다 교체한 것에 비해 대조된다. 그만큼 제주의 공기가 깨끗하다는 것이다. 또 물 등이 깨끗한 것도 더 좋은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물류비는 도외에 있을 때보다 2배 이상 들어간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테크노파크(JTP)에서 지원해주지만 다른 기업과 함께 쓰다 보니 실을 수 있는 양이 적은 편이다.

(주)한국비엠아이 연구소 내에서 한 연구원이 약을 제조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 만든 의약품은 총 44가지에 이른다.

앞으로는 항암 치료제, 후발성 백내장 치료제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신제품 출시에 주력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산·학 협력도 적극적이다. 현재 이남호(화학과) 교수가 이끄는 제주해조산업 RIS사업단과 함께 여러 의약품을 연구·개발 중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불치병과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안정적이고 즐거운 회사생활 지향

사원 복지 및 능력 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동호회 지원, 대학 및 대학원 등을 다니는 사원들을 위해 시간을 배려해주고 있다. 또 사원들이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도 해주고 있다. 사원들이 가장 적합한 부서에 배치해 사원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회사는 평생직장을 모토로 삼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 사원을 해고한 경우는 없었다. 회사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사원들에게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를 추구한다. 인원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보니 사원간의 유대관계가 좋다. 사원들이 늘 웃고 즐겁게 일을 하면서 연구하는 것이 기술 개발에 성공의 원동력이다. 이런 기술개발 등에 힘입어 지난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술으뜸' 기업으로 선정받을 정도로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주)한국비엠아이는 단순히 수익사업이 아닌 모든 이들의 꿈을 위해 약을 만든다. 회사 설립은 8년이 갓 넘었지만 특허 개수, 기술과 관련된 노하우만큼은 어느 중소기업에도 뒤쳐지지 않는다.

김동현 기자

채용시 성실성 눈여겨봐 면접전 회사정보 꼼꼼히!

인터뷰 한국비엠아이 여승재 부장

▶어떻게 사원들을 채용하나.

"우리 회사는 수시로 인재들을 채용한다. 채용 방법으로는 잡코리아 등 구직사이트, 잡페어 등 취업박람회, 산·학 협력 등이 있다. 채용 과정은 필기 시험은 없고 이력서와 면접을 위주로 채용한다."

▶채용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

"제일 중요한 가치로 성실성이다. 우리 회사는 제약 회사다 보니 노하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노하우만 쌓고 자진 퇴사하는 경우가 있다. 그 부분을 줄이고자 성실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타 기업들은 학력, 업무능력을 요구하지만 우리 회사는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해 그렇게 크게 능력을 보지 않는다. 다만 얼마나 성실하게 배우느냐에 척도를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공도 딱히 신경쓰지 않는다. 이제까지 배운 것보다 앞으로 얼마나 배워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고 채용한다. 학력보다는 보이는 모습과 성실감, 테크니션만 좋으면 누구든 채용할 생각이다.

또 사회생활을 해 본 사람들을 더 높게 생각한다. 경력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등을 해 본 학생들을 원한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배운 능력은 업무에서 어떻게든 도움이 된다. 또 책임감도 배웠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아쉬운 점은.

"제주도의 특성만 보면 도외에 비해 경쟁의식이 없는 것 같다. 이력서를 받아 보면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열심히 하겠다는 경쟁의식보다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은 취업에 더더욱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여자보다 남자가 이런 경향이 심한 것 같다.

또 옛날보다 학생들이 가벼워지고 진지함도 전 세대들에 비해 떨어진 것 같다. 지난해 열린 잡페어에서도 회사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이 면접을 보러온 학생들이 많았다. 면접을 보러왔다면 최소한의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고등학생이 더 잘 준비했다. 대학교를 졸업한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열정을 갖고 지원했으면 좋겠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마디.

"너무 위만 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회사도 생산부나 연구부 등 급여가 다른데 이런 부분에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불만은 우물 안 개구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자기 자신을 한탄하기 보다는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렀으면 좋겠다."

김동현 기자

JDC 대학생 아카데미 University Academy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의소리와 함께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의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열리는 JDC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6월 11일까지 총 11번의 강좌와 발표대회, 현장체험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단 한 번뿐인 찬란한 인생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 네 길을 걸어라

서 명 숙 / 제주올레 이사장

내 어릴 적 별명은 '간세달이(움직이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로 매일 늦게 일어나고 동작이 느려 학교에 지각하기가 일쑤였다. 기자의 꿈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키웠다. 그 꿈을 안고 고려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해 대학 학보사인 고대신문에 들어가 열과 성을 다했다.

그러다 엄한 길에 빠졌다. 유신독재시절에 학생운동에 관여하다 1979년 봄 교생 실습차 고향에 왔다가 서울로 압송됐다. 어디인지 모를 곳에 끌려가 몇 달을 갇혀 있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다시 학교에 돌아와 졸업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말 그대로 암울한 시대였다.

심신이 지칠 때 다가온 걸음의 미학

마침 운동권 경력을 흠 잡지 않는 잡지사에 취직했다. 이후 1989년 새로 생긴 시사저널에 아줌마 신입 기자로 입사했다. 제일 먼저 출근하고 밤새서 기사 쓰는 기자가 됐다. 운동권 출신에 늦은 사회생활 시작으로 또래 기자들에 비해 출발이 늦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발목을 잡았던 조건이 오히려 밑천이 됐다. 고 김근태, 이해찬 등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정치부 특종도 많이 했다. 남자들의 세계라 여겨지는 시사주간지에서 최초 여성 정치부장과 편집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런데 근무하던 '시사저널'이 부도나고 새로운 발행인이 오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심했다. 휴가원을 내고 고향으로 다시 왔다. 각박한 도시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편집장도 됐지만 고장난 기계처럼 몸은 망가지고 영혼은 춥고 쓸쓸했다.

그때 어른인 제가, 마음속의 아이에게 '다시는 너를 불쌍하게 놔두지 않을게, 가끔은 하늘도 보고 노을도 지켜보게 해줄게'라고 약속했다. 서울로 돌아와 사표를 던진 후 산책을 시작했다. 다시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책을 계속하다 스페인의 순례자의 길 산티아고로 떠날 결심을 했다. 40대 중반부터 건강이 나빠져 시작한 운동이 걷기였다. 처음에는 15분 걸었다. 그러다 재미를 느꼈다. 내가 나에게 관대해지고 건강해지고 마음이 넓어졌다.

일 중독자로 심신이 너덜너덜해질 때 평화와 휴식을 선사하고 인생 후반전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 산티아고를 걸었다. 열정이 없으면 조금만 변수가 생겨도 걸려 넘어지게 돼있다. '가지 말라는 뜻이야', '하지 말라는 팔자야'라며 핑계를 댄다. 만약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제주올레는 없었을 것이다. 산티아고 길은 아름다웠다. 서울서 살던 30여년은 아침 새벽 눈뜨자마자 전철에서 화장해가며 출근하고 초주검이 돼서 마지막 전철에 실려 왔다. 옥수수밭, 포도밭, 배낭 멘 사람들, 성당 풍경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평화'라고 생각했다.

길 위에 웃음이 있고, 그토록 찾던 생의 답이 있더라

산티아고에서 고향 제주를 떠올렸다. 그토록 감동적인 풍경이 20일 정도 지나니 지겨워졌다. 귤밭은 왜 없을까. 돌담, 수선화, 동백 그런 꽃들은 왜 없는 것이지 그런 생각만 들었다. 제주는 새만 200여종이다. 산티아고에는 새도 거의 없다. 나무도 올리브나 포도 등 한두 종류가 전부였다. 마침 700km 가까이 걸었을 때 마주친 한 여성 덕분에 '올레'를 만들게 됐다.

길에서 만난 영국 여성과 국경을 넘는 수다를 떨었다. 길이 인생의 학교라고, 현대인들은 다 환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여성은 돌아가면 무엇을 할 것이냐고 했다. 당신 나라야말로 이런 길이 시급하다고 하더라. 그 여성은 한국에 두 번 와 봤다고 했다. 술도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시는 게 아니라 '원샷'하며 시합하듯 마시고, 미친 듯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같더란다. 고층아파트와 지하철도 이야기 했다. 그 말을 듣고서 갑자기 벼락을 맞은 느낌이었다.

꼬닥꼬닥 걸어가는 이 길처럼

제주올레는 곡선이 많다. 직선보다 곡선이 주는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이 있다. 길은 폭이 1m를 넘지 않는다. 넓게 만들면 나무를 베어내야 한다. 우리는 풀만 깎고, 나무는 잔가지만 쳐낸다. 자연을 잠깐 빌리는 것이다. 우리가 걷자고 우리보다 더 오래 살고 있었던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안 된다. 정부가 길을 낸다고 하면 토목공사를 동반한다. 길 다운 길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산만큼 쓰려고 한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돈을 쓴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핑계 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만 '나'를 결정하고 인도하고 성장시킬 도리밖에 없다"

부모님이 살던 시대와 여러분의 시대는 다르다. 단 한번 뿐인 인생을 부모에게, 선생에게 맡겨놓고 내 선택이 아니라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에게 핑계 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 혼자의 힘에 의해서만 '나'를 결정하고 인도하고 성장시킬 도리밖에 없다. 의지하고 기댈 곳이라곤 어디에도 없으니 어차피 한번 당차게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적 존재일 바엔, '나' 밖에 믿을 것이 없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때 나는 나의 것이며, 내가 오직 나의 것만이 될 때 비록 나는 고독할지라도 신념을 가지고 삶의 가시덤불을 굳건히 헤쳐 나갈 수 있다.

'명품국제자유도시'는 창조적 마인드에 달려

제주의 꿈, JDC의 도전

변 정 일 / JDC 이사장

대한민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제주를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제주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지난 2003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탄생했다.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인 JDC가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서귀포관광미항,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등 6대 프로젝트가 제주를 싱가포르, 홍콩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키우기 위한 핵심사업이다.

인구 100만, 경제가치 10조, 이주기업 1천개 목표

현재 제주의 인구 증가대로라면 오는 2022년 71만5000명이 된다. 하지만 20년 이내에 제주 인구 100만명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인구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서귀포 경제가 쇠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제주시로 빠져나가서다. 지난해에 서귀포 인구가 10년 만에 늘었다. 먹고 살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다. JDC 사업이 잘 돼서 제주가 더욱 좋은 도시가 되면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JDC가 작년 10주년을 맞아 2022년까지 설정한 목표가 '제주 인구 100만, JDC에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 10조원, 제주 이전 기업 1000개 달성'이다. 목표를 이루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지만 목표를 크게 세워놓고 달성하려고 안간힘을 써야 기업을 900개쯤 유치하고, 경제 가치는 9조5000억 정도 나고, 인구도 80~90만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꼽히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일컬어 '홍가폴'이라고 한다. 하지만 홍가폴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이를 능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주가 명품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다는 큰 꿈이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도록,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한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외국어 실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영어교육도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큰 만큼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노스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제주)에 매년 많은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NLCS 제주는 160년 전통의 NLCS의 첫 해외 분교이다. 영국 본교의 교육환경과 시스템, 교육과정을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국내 학력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교환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영국의 본교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공립인 KIS를 비롯해 캐나다의 브랭섬홀 등 3개 학교가 차례로 개교했다.

현재 총 학생수가 1400여명이다. 이를 통해 학생 한 명당 연간 3200만원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돈이 대부분 제주도에 쓰인다. 인건비는 물론 제주에서 생산되는 식자재를 쓴다. 학생들이 등산도 가고, 승마도 하며 다니는 곳마다 돈을 쓴다. 적어도 그 중 절반 이상은 부모가 제주에 거주하고 있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영어교육도시 인근에 항공우주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9000여 평에 2014년 상반기 개관이 목표다. 아시아 최고의 항공우주박물관을 만들겠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한 번은 보여줘야 하는 필수 체험코스가 되도록 하겠다. 의료시설도 좋아야 한다.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우수한 의사와 세계적인 의료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다.

꿈만 있으면 홍콩·싱가로프 능가할 것

헬스케어타운과 예래휴양단지가 완성되고 영어교육도시가 목표하고 있는 2만3000명의 학생수를 달성하면 제주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 또 서귀포 관광미항사업과 첨단과학기술단지 제2단지 조성사업, 서귀포시 혁신도시가 완성돼 정부기관이 들어선다. 이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 시너지 효과도 생긴다. 기업들이 제주로 이전하자고 앞다투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핵심프로젝트 등 이 많은 시설들을 해놓고 관광객들이 발을 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들이 여기에서 공장도 짓고, 사옥도 지으면서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이다.

"어떤 생각을 갖고 변화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지역의 흥망은 달라진다. 모두가 변화는 시대에 걸맞게 진취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놔도 중요한 것은 제주도민들이 외부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업가들의 기준,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제주에 올까'라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즉 창조적 글로벌 마인드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이끈다. 어떤 생각을 갖고 변화를 받아들이냐에 따라 지역의 흥망은 달라진다. 우리 모두가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진취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보존과 시대 변화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때 융성한 나라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 변화는 보존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공간으로 재창조… 타자 시선의 진취성 주목

학술기고 제주의 문화콘텐츠, 매계 이한우(李漢雨)의 영주십경(瀛洲十景)

김 치 완
철학과 교수

조선후기 제주사람 이한우의 고향인식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는 제주를 말할 때마다 늘 '영주십경'이 손꼽힌다. 그런데 탐라(耽羅)나 제주(濟州) 대신 영주(瀛洲)라는 말을 쓰는 것도 낯설지만, 중국산수화의 화제인 소상팔경(瀟湘八景)에서 비롯된 관동팔경이나 단양팔경과는 달리 십경을 말하는 것도 낯설다. 물론 이 낯설음은 이즈음에 우리가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고, 불교의 대표적 공간인식 방식의 하나가 시방세계(十方世界)라는 점을 알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오늘날 영주십경을 말할 때는 언제나 조선후기 제주사람이었던 매계 이한우(1823~1881)의 '영주십경시'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승이었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를 비롯한 도내외의 인사들과 교류가 많아서 그의 시가 널리 알려진 탓도 있겠지만, 자신의 고향 제주를 영주(瀛洲), 곧 이상향으로 재창조했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짧은 글에서는 조선후기 제주사람인 이한우의 고향인식을 '낯설음'이라고 하는 소재로 살펴보고자 한다.

분리(分離): 낯선 공간의 인식

부해(浮海) 안병택(安秉宅, 1861~1936)이 썼다는 '매계선생행장(梅溪先生行狀)'에 따르면, 이한우의 입도조는 전주 이씨 계성군파의 이팽형(李彭馨)이다. 그런데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의 자료와 '선조실록'의 기사를 비교해보면, 이팽형은 그의 아버지인 회은군(懷恩君) 이덕인(李德仁)보다 열 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이나 집안, 그리고 국조(國祖)에 이르기까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에는 신비화 또는 장엄화라고 하는 일종의 스토리텔링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혼란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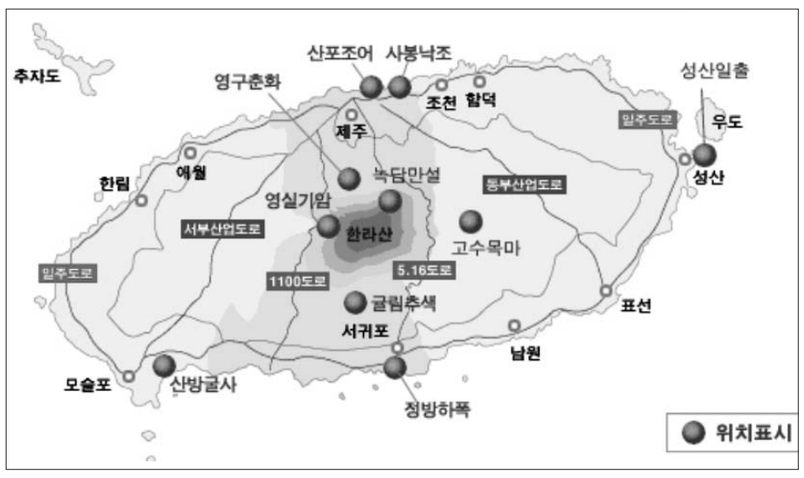
그런데 이한우 개인의 삶도 과거시험 때문에 여덟 번이나 바다를 건너 상경했다는 것이나 유배와 있던 추사 김정희와의 교유는 물론, 제주목사로 왔던 가은(嘉隱) 목인배(睦仁培, 1794~?)와의 교유 등 외지인들과 활발한 관계를 맺었다는 기록 등으로 보건대, 온전히 제주사람으로서의 시선을 고집한 인물로 보기 어렵다. 이즈음에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이한우는 분명히 신촌(新村) 출신의 제주사람이지만 당시 제주에 있던 외지인들과의 교유를 통해서 고향 제주에 대한 타자의 시선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추론은 그가 고향 신촌 마을에 대해서 쓴 '학도계좌목서(學徒契座目序)'와 유배와 있던 추사를 그리며 지은 '근제금추사선생수성초당(謹題金秋史先生壽星草堂)'의 구절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이 글들에서 고향 마을을 '구석진 포구', '마을의 풍속이 어두워져서 오래도록 그 거칠음을 깨뜨리지 못하였다', '멀리 남쪽 바다 한 채 초가를 지어'라는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제주에 온 타자(他者)의 눈길에 공감하고, 그러한 관점으로 제주를 재진술하는 '경계인으로서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원행(遠行): 낯선 공간의 체험

지금도 외지인들에게 제주는 경관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곧잘 실제보다 과장되게 평가된다. 하지만 제주사람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환경에 대해 실제 이상으로 낯설게 표현하는 외지인들이 낯설다. 그래서 제주사람들은 외지인들이 낯설어하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공감을 표현하거나, 못들은 척하면서 그 낯설음을 해소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외지인들에게 제주는 낯설고, 제주사람들에게 그것을 낯설어하는 외지인들이 낯설다. 그러다보니 제주사람들이 외지인들의 눈으로 제주를 볼 때 제주는 이중으로 낯선 공간(hyper reality)이 되어 버린다.

이한우의 시에는 외지인들을 현실적인 인물로, 제주와 제주인들을 비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가 여덟 번씩이나 바다를 건너 과거를 본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라의 법도에 과거가 아니고서는 선비가 나아갈 길이 없다(國規非科擧士無進路)'라고 해서 자신을 제주사람이면서 동시에 선비(士)로 인식하고 있는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그의 원행(遠行)은 말 그대로 공간으로는 천리 밖의 본래 고향, 시간으로는 19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hyper) 것으로 실현된다. 하지만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한우는 오히려 제주사람일 수밖에 없는 나그네로서의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영주십경은 사봉낙조, 산포조어, 영구춘화, 녹담만설, 영실기암, 고수목마, 굴림추색, 산방굴사, 정방하폭, 성산일출을 일컫는다.

이제 이한우는 서울과 제주에서 모두 경계인의 관점에서 선경(仙境), 곧 비현실적 공간을 노래하는 시인이 된다. 서울에서 쓴 시들에서 그의 의식이 '제주에서 서울, 서울에서 제주'라는 공간이 이중적으로 분리 교차되고 있는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한우의 '멀리감'과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자조(自嘲)의 감정은 일종의 실존적 불안(Angst), 또는 이중적 분리에 따른 난파(Scheitern)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본(反本): 낯선 공간의 창조

매계 이한우의 시는 '만사(輓詞)'와 '영주십경(瀛洲十景)'을 제외하면 총 94편 99수인데, 이 가운데서 외지에서 지은 시로 보이는 총 27편 가운데 세 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나그네의 회포와 고향을 그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시들에서 그리는 고향은 그의 의식 속에서 재구성된 고향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고향은 '자신의 좌절을 벗어날 수 있는 탈출의 공간이며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며 그리움의 공간'으로서, 실존적 불안과 난파의 경험을 해소할 수 있는 가상적 공간이다.

그런데 이 가상적 공간에서 그는 일상의 재발견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한 현실을 노래한다. 곧 그의 시 '요지(樂志)'에는 '집 동쪽엔 연못 남쪽엔 우영팟, 나날의 삶은 그저 밭 갈고 고지 잡을 뿐, 부모 모셔 오래 살아 즐거움 끝없으니, 남은 힘 모아 시경 서경을 읽노라'라고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도 평범한 일상과 군자로서의 직분을 실천하는(餘力讀詩書) 선비의 일상이 대비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대비구도는 영주십경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지명부터 본다면 '산과 봉우리(山峯)－언덕과 건물(邱房)－숲과 연목(林潭)－집과 방(室房)－포구와 수풀(浦藪)'이 대비되는데, 여기에서는 높고 낮음, 부분과 전체, 안팎이 전통적인 음양대대적(陰陽待對的) 관점에서 중층적·공감각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 형상에 있어서도 '뜨는 해와 지는 햇빛(出日落照)－봄꽃, 여름폭포, 가을빛, 늦은 눈(春花夏瀑秋色晩雪)－기이한 바위와 굴 속의 절(奇巖窟寺)－고기 낚음과 말을 풀어 먹임(釣魚牧馬)'이 시간과 동정(動靜), 은현(隱現), 속방(束放)이라는 중층적 구도로 대비되고 있다.

새롭게 창조되는 제주

이한우는 제주의 자연을 육지와 동떨어진 정적인 섬으로 그리는 대신, 그것들에 안정(安靜)되면서도 약동(躍動)하는 공간적 이미지와 천변만화(千變萬化)하면서도 항구일관(恒久一貫)하는 시간적 이미지를 불어넣어 새로운 시공간으로 재창조하였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익숙한 자아의 관점에 머물지 않고, 타자의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진취성이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탈중심성은 이중적이다. 타자의 시선을 무시한 채 '이것이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제주다움이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면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할뿐더러 제주도 내에서만 통용되는 슬로건에 그칠 우려가 높다.

반대로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자연경관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제주를 이렇게 소비하겠다'고 나서면 제주의 자기 중심성은 파괴되고 만다. 따라서 제주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안팎으로 열어젖힐 수 있는 계기와 실제적인 만남의 장(場)을 통해 끊임없이 모색되고 수정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권하고 싶은 책

학문엔 왕도가 없으나 방법은 있다

정민 지음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책을 읽는다는 것은 유목적적인 행위다. 인간의 행위치고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것이 없듯이, 독서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자주 망각하곤 한다. 책을 읽다가 내용에 함몰되거나 부분적인 내용 파악에 빠져 목적을 잃어버리기 일쑤다. 그만큼 책 읽기는 쉽지 않다.

독서의 목적과 학문의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특히 학생)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은 정민의 『다산선생 지식경영법』(김영사, 2006.)이다. 다산치학 10강(綱), 50목(目), 200결(訣)을 소개한 책으로, 읽노라면 무릎을 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내가 이 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어망득홍법(魚網得鴻法)으로, '하나의 일을 하나씩 하기보다 동시에 몇 가지 작업을 병행하여 진행하라.'는 권고였다. 내가 이 책을 읽은 것은 박사학위논문을 쓰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다. 그런데도 몇 페이지를 넘기자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하나하나의 방법이 나에게 주는 충고인 것 같았다.

그 중에서도 어망득홍법(魚網得鴻法)은 학위논문에 목매달고 있는 나를 부끄럽게 했다. 여러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하라는 권고는 당시 내가 구하고자 했던 답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산선생의 충고를 받아들여 동시다발적으로 항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더니 거짓말처럼 내용들이 통합되기 시작했고, 서로 보완하며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책까지 손을 댈 수 있었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 말을 풀자면 통합적 사고로 통섭하라는 뜻이었다. 모든 학문은 서로 통하는 길이 있기에 상호보완, 상호 협조하라는 충고. 그래서 학위논문과 함께 '이야기로 풀어가는 우리 시조'를 동시에 낼 수 있었다. 다산선생의 지혜와 그 지혜를 내게 알려준 정민 선생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었다. 많은 내용 중에 학업과 학문에 뜻을 둔 후배며 제자들에게 다음 다섯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먼저 수사차록법(隨思箚錄法)으로 생각이 떠오르면 수시로 메모하라는 것이다. 생각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고 한다. 떠오를 때 잡지 않으면 곧 사라져 버린다. 따라서 늘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축기견초법(築基堅礎法). 기초를 확립하고 바탕을 다지고 난 후 앞으로 나가라고 권한다. 공부를 시작할 때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헤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일이야말로 학업과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셋째로 촉류방통법(觸類旁通法)은 묶어서 생각하고 미루어 확장하라는 권고다.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비슷한 것을 묶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묶어서 생각할 때 비교와 대조, 구분과 분류가 가능해진다. 그렇게 됐을 때 비유나 유추 등과 같은 방식으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넷째로 공심공안법(公心公眼法)이다. 선입견을 버리고 주장을 펼치라는 것이다. 우리는 선입견을 갖지 않을 수 없고, 자신의 손익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입견을 가질 경우 바른 논지를 세울 수 없고, 손익을 따질 때 진실이나 진리와는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학문의 길은 지난(至難)한 것인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수정윤색법(修正潤色法)을 강조하고 싶다.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이를 다듬고 고치지 않으면 짚북데기와 다를 바 없다는 말은 고금을 막론한 진리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사람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다듬지 않으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갈고 닦고 다듬는 일이야말로 학문의 시작이자 끝이라 생각한다.

이외에도 이 책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경영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을 때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 표시하고, 되새기며 읽으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읽고 나서 허탈감을 맛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성 준
국어국문학과 강사

빈곤층은 왜 보수정당을 지지하나… 정치 무관심은 나쁜 정치를 불러낼 뿐

강연초록 '정치, 삶을 만나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이 '정치, 삶을 만나다'를 주제로 지난 16일 오후 3시 벤처마루 10층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인문학 모임인 '유목민'과 '함께 꿈꾸는 제주'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강연회는 이규배(제주국제대) 교수의 사회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이철희 소장의 강연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로라하는 정치 전문가이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정치전략을 강연하고, 연구하려다 보니 직업을 잘못 골랐다는 생각도 든다. 정치를 이론이나 책으로 배웠던 내용과 현실 정치는 크게 차이가 난다. 요즘따라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물음에 휩싸여 있다. 수많은 석학들이 논하는 정치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현실 정치가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정치가들은 언론을 통해 우리에게 싸우는 모습만을 보여준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은 후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정치는 결국 싸우는 것이 일이다. 다만 정치적 이해결사체인 정당으로 편먹고 싸우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학자 게리 스토커는 "숙명적으로 정치는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정책에 따라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갖는 사람이 있다. 보수든 진보든 모두 해당한다.

정치의 수준과 질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유럽의 경우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중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삶도 달라진다. 제러미 리프킨이 '유러피안 드림'(european dream)을 말한 것도 결국엔 정치에 의한 삶의 모습이 미국과 유럽에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국 삶의 질, 삶의 구체적 양태는 정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겠다.

또한 『불평등한 민주주의』(Unequal Democracy)의 저자 바르텔(Larry M. Bartels)의 분석도 있다. 기술변화, 세계화, 인구통계학적 변동 등 사회·경제적 힘들이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도록 강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정치와 공공정책이다. '정치가 경제를 주조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실질적으로 정치현상이다.' 그의 명쾌한 결론이다. '정치엘리트의 이념적 확신과 당파정치가 국민의 경제적 삶, 특히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가 바르텔의 분석이다. 즉 세상의 모든 문제는 정치에서 비롯된다고 설파한다.

주지하듯이, 자본주의는 1원1표의 시스템에 의해 유지된다. 시장에서는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같을 수 없다. 100원 가진 사람과 1,000원 가진 사람은 시장의 결정에 개입하는 정도가 다른 '소비자'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1인1표의 시스템이다. 100원을 가진 사람이나 1,000원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1표를 가진 '유권자'일 뿐이다. 1원1표와 1인1표의 관계에서 정치가 발생한다. 1원1표에 의한 폭력, 차별, 불공정의 폐해를 1인1표의 원리로 바로 잡는 것이 정치다.

그렇다면 정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기에 누구에게 욕을 먹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정당이 집권했을 때 지지기반에 충실한 정책을 펴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겠다고 표방한 정당이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대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은 그러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러 토론회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논객과 논쟁을 벌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할 말이 없게 하는 것이 '민주 정부 10년 동안 서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는 비판이다.

우리나라는 정치인과 유권자간의 결속이 끊어져 있다. 정치 '권'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투표한다. 후보자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저 유명한 사람, 익숙한 사람을 찍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정치와 유권자는 건널 수 없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결국 기득권층만 강화하는 데 유리한 것이다. 진정한 정치는 유권자 앞에 낱낱이 보여져야 한다. 제도 역시 미비하다보니 서민들의 지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결국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도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가난과 빈부격차도 결국 정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정치가 잘못되면 사회의 경제 양극화는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무관심한 가난한 사람,
젊은 세대들의 정치냉소 심각…
정치인들은 더이상 두려워 않아

보수언론과 정당이 대중들의
정치효능감과 참여 가로막아

낙선운동 제도화 시급
'가난한 민주주의' 벗어나야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16일 오후 3시 벤처마루 10층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정치가 대중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가난한 민주주의'(poor democracy)에 빠져 있다. 가난한 이들이 자기배반적인 보수적 선택을 하거나 투표에 불참하기 때문에 정당 정책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없어 사회경제적인 혜택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그 결과 자신이 속한 사회도 가난해진다는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아래서는 경제적 약자들도 선거를 통해 자신을 대변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정당을 통해 자신들의 경제적 불리함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제도와 정책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보수적 선택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더 견고해지고 있다.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국민들과 다른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핵심이다. 소위 스펙(specification·경력) 좋은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해서 좋은 정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과 삶을 같이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대중들의 정치무관심과 냉소주의, 또는 정치불신으로 말미암아 보수적 성향의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만든다. 일반 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 이 관심 정도가 커질수록 기득권 정치인들의 술수와 계략을 간파하기 쉬워진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더이상 정치냉소에 길들여진 가난한 사람과 젊은 사람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잘못돼 있다. 4년간의 국회의원 활동을 잘하지 못하는 정치인에 대해 왜 낙선운동을 할 수 없는가. 왜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치가 대중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정치는 '나 몰라라' 했다고 해서 내 삶속에 피해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에게 직접적 피해로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보수언론과 보수 정치권의 목표이다.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갖지 않으면 현재의 질서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정리=김명지 기자

농가피해 급증으로 7월부터 포획가능… 개체수 조절방안 찾아야

기고 제주 노루 유해동물 지정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김 현 철
한국농어민신문
제주취재본부장

한라산 상징 vs 농작물 절도범 '노루'

한라산의 상징이면서 농작물 피해의 주범이기도 한 제주 노루가 유해동물로 지정돼 3년간 포획이 허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적정 포획지역 지정 등 효율적 포획 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가결하면서부터다.

그동안 제주의 노루는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개체 수가 적어, 1987년부터 먹이주기, 밀렵 단속, 올가미 수거 등 다양한 보호활동을 펼치면서 눈에 띄게 그 수가 늘었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2011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조사 결과 1만7756마리였으며 지금은 그 수가 더 늘어 2만마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마저 있다고 한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은 노루를 비롯해 멧돼지, 까치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도 노루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보니 농민들이 밭작물로 심은 더덕과 메밀, 유채는 물론 각종 월동채소류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농민들에게는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와 더불어 공공의 적이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해마다 노루 피해를 겪는 농민들의 상처는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수입개방으로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밀려오는 가운데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도 급증해 이중고를 겪는다. 생활비와 자녀 학자금, 대출금 상환 등 모든 것을 농사에 의존하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요구인지도 모른다.

아울러 산간 도로에서 노루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문제도 늘어나 개체 수 조절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결국 유해동물로 지정됐다. 동물보호단체의 반발도 있었지만 농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동물보호도 중요한 문제지만 농작물 피해로 인해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농민보호가 우선시 됐기 때문이다.

농작물 피해 · 식물생태계 파괴 우려

멸종 위기에 처한 노루를 본격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노루의 숫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별다른 천적이 없는 데다, 한라산의 영물로 여겨져 지난 30여 년간 보호를 받는 사이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었다. 지난 2월에는 제주지역 농민단체에 이어 제주시내 100여개 마을의 이장단들이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야생동물인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에 접수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연도별로 보면 2009년 2억800만원, 2010년 6억600만원, 2011년 13억6000만원, 2012년 8억5300만원에 달한다. 제주도에 접수되지 않은 농작물 피해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면서 농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상금도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는 노루 피해보상금으로 2009년 1억원, 2010년 1억4100만원, 2011년 3억9000만원2012년 3억8100만원을 농가에 지급했다. 제주도가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 울타리와 그물망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노루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문제는 농경지뿐만이 아니다. 차도에 갑자기 뛰어든 노루와 차량이 충돌하는 '로드킬'이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주요도로에서 노루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는 2005년 16건이었으나 2006년 22건, 2007년 99건, 2008년 114건, 2009년 119건, 2010년 111건, 2011년 111건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5·16도로나 1100도로 등 산간도로에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중산간 도로 및 심지어 일주도로에서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노루 개체 수 증가로 인한 한라산 식생 파괴도 우려되고 있다. 노루 뿔에 긁혀 껍질이 벗겨지거나 고사 위기를 맞는 등 피해를 입은 나무가 적잖게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노루 개체 수 증가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로드킬', 식생 파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인위적인 노루 개체 수 조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탁상공론에 빠진 현실 외면한 대책만

노루의 적정밀도는 100만㎡당 8마리 정도로 알려졌는데 제주지역 노루 분포로 본 밀도는 해발 500~600m 45.6마리, 해발 400~500m 36.7마리 등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한라산은 노루농장이나 다름이 없는 셈이다. 이렇게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보니 먹을 게 부족하고 결국에는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작물을 공격하는 일이 빚어진 것이다. 그동안 동물보호에만 애쓰다보니 정작 이로 인한 폐해를 예상하지 못했다. 노루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도 농민들 기대에 못 미친다.

그나마 농작물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노루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한다. 사람이 없을 때 나타나서 여기 저기 조금씩 뜯어버리고 밭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증명이 어렵다. 보상절차도 까다로운데다가 그나마 통과해도 보상금이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피해를 안보는 게 상책인데 노루도 워낙 영악해서 마치 농민을 우롱하는 듯 피해를 입힌다고 한다.

한라산의 상징인 동시에 농작물 피해의 주범이기도 한 제주 노루.

노루가 유해동물로 지정됐지만 함부로 포획해서 식용 등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 농작물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노루 포획에 대해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총포를 사용한 노루 사냥이 아니라 그물 등을 사용해 밭 주변 노루를 생포하고 이들 노루를 기존에 조성한 제주시 봉개동 노루생태관찰원에 수용한다는 것이다. 추가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만㎡를 새로운 노루생태관찰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한 방안이라는 게 일반적 의견이다.

생태공원 1곳의 수용규모는 최대 노루 500마리 정도여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노루 개체수 조절이라는 당초 목적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노루 개체수가 2만마리 정도라는데,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적정개체수는 3300마리로 추산되기 때문에 나머지 노루를 다 수용하려면 생태공원을 수십개는 만들어야 한다. 또한 포획방법도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생포가 어렵다고 한다. 1년에 100마리도 못 잡을 가능성이 있으며, 겁도 많아서 포획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주면 죽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한라산 국립공원 경계에 울타리를 치면 노루들은 먹이가 없어서 거기서 동사할 수 있다고 한다. 농가 피해도 없으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야만 도민이 공감할 수 있다.

일단 개체 수 조절이라는 큰 틀에서는 농민과 환경단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개체 수 조절 방법이다. 농민들은 어떤 형태로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는 총포, 그물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포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획방법에 상관없이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포획해서 서식지를 격리시키자는 주장이다.

이처럼 노루의 개체 수 조절 방법 때문에 시각차가 큰 것은 농민들의 경우 생존권이 달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환경단체의 노루보호 주장에 대해 감성적이라며, 농민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농민들은 사람목숨이 중요하지 노루목숨이 중요하냐며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일단은 동물보호에 비중을 두고 있다. 개체 수를 조절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포획해서 안전한 곳에 격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민공감대 형성이 필요

농민과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적극적인 중재와 아울러 효율적인 방안제시가 중요하다. 제주도가 구상하고 있는 대책은 피해지역 노루를 생포해 이주시키는 방안, 마을공동목장 등에 임시 이주시설 마련, 국공유지를 활용한 노루자연생태공원 조성(3~4개소), 돌문화공원과 자연휴양림을 활용한 노루생태공원 조성, 한라산 국립공원 경계 울타리 설치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정해진 시일 내에 개체수를 조절하기 어렵고 그 사이 피해로 농가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점과 노루를 생포·이주시키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특히 생태공원에 수용하는 방안은 껍데기뿐인 대책이 될 수가 있다. 노루의 적정밀도를 감안할 때 보호가 아니라 사육이 될 가능성이 많다. 어쨌거나 이제 공은 제주도정으로 넘겨졌다. 농민과 환경단체 모두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무조건적인 포획이나 보호는 국내외 사례에서 보듯이 멸종위기에 이르거나 반대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부작용만 되풀이될 뿐이다. 제주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방안마련으로 지금의 논란이 수그러들기를 기대한다.

영화평 <셔터 아일랜드>

삶의 상처와 아픔 너머엔 희망이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김광석의 불후의 명곡 '그날들'의 노랫말 중 한 부분이다. 우리는 이따금 우리가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해 사무치도록 후회하며, 그 일이 잊혀지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후회하는 일, 정말로 잊혀졌으면 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더욱 깊게 우리의 뇌리 속에 각인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부질없이 아파하고, 일생 동안 그 아픔을 반복한다.

다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아픔과 상실감에 매몰된 나머지 잊고 싶은 기억 앞에 벽을 쌓아버리기도 한다. 아픈 기억을 완전히 가둬버린 채 왜곡된 기억을 창조해내고서, 그것을 마치 자신의 진짜 기억인 양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2010년 개봉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셔터 아일랜드>는 데니스 르헤인의 소설 <살인자들의 섬>을 바탕으로 각색 제작된 작품이다. 연방보안관으로 등장하는 주인공 테디(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역)가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병자들을 격리시킨 고립된 섬 '셔터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환자 실종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섬을 방문하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그런데 병원의 의사, 간호사, 관계자들의 무언가 석연치 않은 증언과 행동으로 인해 수사는 예상 외로 쉽게 진척되지 않는다. 설상가상 폭풍이 불어닥쳐 테디와 함께 온 동료 척(마크 러팔로 역)은 섬에 고립되게 되고, 그들에게 괴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영화는 전개된다.

'자기방어기제' 또는 '자기합리화'. 영화는 자신 앞에 놓인 끔찍한 기억을 망각, 왜곡, 재창조하는 한 '정신병자'의 모습을 치밀한 계산속에서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는다). 잊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스스로가 만들어낸 '방어기제'를 통해 망각하고야 마는 인간의 처절한 심리를 밀도 있게 그려내는 것이다. "괴물로 평생을 살겠나, 선량한 사람으로 죽겠나." 자조하는 물음 속 그는 끝내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선량한 사람으로, 왜곡된 자아로 사는 것을 택한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다. 간혹 사람들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큼의 커다란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전쟁의 피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실연의 아픔 등. 그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으며, 그로 인한 아픔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감히 말로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셔터 아일랜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리라. 여기 제주만 해도 4·3이라는 거대하고 끔찍한 비극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 어느 한 명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다. 누구나 잊고 싶다고 잊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영화에서처럼 방어기제로써 그 기억을 지워버리고, 다른 기억을 안고 사는 허위의 삶이 과연 맞는 삶일까?

우리의 삶은 아픔이 있기에 거듭나고, 아픔을 딛고서 성장하기에 가치가 있을 것이다. 글머리에 적은 '그날들'의 노랫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은, 끊임없이 아픔과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이 그대로 투영돼 있기 때문은 아닐까. 좋은 것만, 아프지 않은 것만 기억하고 산다면 당장은 편하겠지만, 그런 삶을 진실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으로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강호순 사건으로 살해당한 피해자의 오빠는 동생의 죽음을 계기로 경찰이 됐다. 스포츠 선수 김연아는 끊임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싸워가며 마침내 피겨의 여왕이라는 최고의 타이틀을 획득했다. 또 현재 최고령 위안부 할머니 김복득씨가 눈물로 증언한 증언록은 경남 모든 초중고의 정식 교육자료가 됐다.

어떻든 잊지 말아야 한다. 설령 그것이 너무나도 떨쳐버리고 싶은 큰 아픔일지언정 말이다. 영화에서와는 달리, 다른 어떤 사람들은 아픔을 발판 삼아 새로운 길을 열고, 수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아픔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이 얻지 못하는 소중한 것을 얻어낼 수 있다. 더불어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또 다른 아픔을 막아낼 수 있다. 아픈 기억, 그로 인한 상처의 진정한 극복은 망각이 아닌 승화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소영 기자

제주어 낱말맞추기

제주어 공부도 하고, 2만원 상품권도 받자!

1)		2)	■	3)		
	■		■		■	■
■	4)		■	5)	6)	
7)		■	8)	■		■
■		■		■	9)	
■	10)	11)		■	■	■
■	■		■	■	■	■

소속·직위(학과·학년) :

이름: 연락처:

제주대신문

가 로 열 쇠

1) '갓 결혼하였거나 결혼할 여자'를 의미하는 제주어다. 표준어로는 '신부' 또는 '새색시'라고 한다.
3)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남서쪽, 비자림 동쪽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그 곁의 작은 오름은 '아끈○○○'라고 하는데, 인근의 굴속에서는 제주4·3사건 때 희생된 11구의 시신이 발굴된 바 있다. 이 오름의 한자명은 '월랑봉( )'이다.
4) '흰쌀로 만든 떡'을 말한다. 표준어 '흰떡'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5) 표준어 '외할머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7) '자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이것이 많은 밭을 일컬어 '○○왓'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자갈'을 '작멜', '잭멜'이라고도 한다.
9) '신당( )이 있는 밭'이라는 의미의 제주어다.
10) 표준어 '오소리'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족제빗과의 하나로 너구리와 비슷한 이것은 산에서 굴을 파서 생활하는데 주로 밤에 활동한다.

세 로 열 쇠

1) 제주 초가의 재료가 되는 '띠'를 재배하는 '띠밭'이라는 뜻이다.
2) '시루에서 쪄낸 떡'이다. 지역에 따라서 '찐떡' 또는 '찜떡'이라고도 한다.
3)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는 데 쓰는 도구'로 표준어 '다리미'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4) '젖먹이에게 왼손 손바닥에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댔다 뗐다 하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를 말한다. 아기 앞에서 이 동작을 하면서 '○○○○' 하면 아기는 이 동작을 따라한다.
6) '마을을 맡아 지킨다는 여신( )을 모신 곳'을 말한다. 제주의 마을 대부분에 있는 민간신앙의 성소다. 달리 '○○당'라고 한다.
8) 표준어 '쥐치'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이것은 담백한 맛이 일품인데 회로 쳐서 먹거나 조림을 해서 먹는다.
11) '딸이나 소의 나이 두 살'을 뜻하는 제주어다. 표준어로는 '두습' 또는 '이듭'이라고 한다.

제주어 낱말맞추기 응모자는 2013년 3월 29일(금) 오후 6시까지 풀이지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 2명에게 2만원권 문화상품권 1장씩을 드립니다. 이번호 당첨자는 4월 3일자(수) 890호 제주대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064)754-2277 또는 010-9206-4598

제주어 낱말맞추기 당첨자

김지현(해양의생명과학부 2)
고소예(생명공학부 3)

<886호 정답>

1)동	2)지	■	■	3)상	고	4)지
■	름	■	5)놈	삐	■	슬(실)
■	■	■	■	■	■	■
6)요	망	지	7)다	■	■	8)심
■	■	■	9)심	벡	10)후	다
11)야	12)게	■	어	■	루	■
■	끔(꿈)	■	13)멍	석	■	■

출제 : 국어문화원 부설 제주어센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안내

1.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

▶목적 : 학생이 직접 사업 발굴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공모분야 : 학부생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취업역량, 교육역량, 국제화역량 강화분야(단, 우리대학에서 시행되었던 기존 사업 외의 새로운 사업에 한함)
▶대상 : 학부생
▶등록기간 : 3월 24일까지
▶신청방법 : 제주대소식에 공모계획의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jemoon@jejunu.ac.kr)로 제출
▶상금내역:최우수 80만원, 우수 50만원
▶문의 : 기획평가과(754-2144)

2. 2013학년도 2학기 필리핀 자매 교류수학

▶지원자격: 학점 2.7점 이상
-파견 종료후 우리대학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할 잔여학기가 있는 학부 재학생
-같은 프로그램으로 파견된 경력이 없는 자
-토익 500점 이상 소지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소지자 가기 전, 후 영어성적 제출
▶모집기간 : 5, 6월 공고
▶문의 : 국제교류본부(754-2197)

3. 미취업 졸업자 해외취업지원사업

▶대상 : 2012년 8월 및 2013년 2월 미취업졸업자 10명
▶사업내용 : 해외취업에 성공한 학생에 대해 지원
▶지원혜택 : 해외 취업 항공료, 해외취업 체제 지원비
▶모집기간 : 3월 31일까지
▶신청방법 : 취업전략본부에 문의하면 됨
▶문의 : 취업전략본부(754-2034)

교수시론

인문고전과 철학책을 읽는 대학인이 되길

강봉수
윤리교육과 교수

“

인간은 유전적 프로그래밍을 초월하고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 존재이자 철학적 존재 대학시절 철학과 인문학을 통해 사색하고 모색해야 한다

”

나와 너는 같은가 다른가? 남자와 여자는 같은가 다른가? 문명인과 야만인은 같은가 다른가? 이러한 질문에 우리 중 십중팔구는 깊은 생각 없이 ‘다르다’고 답한다. 이 대답은 내가 했던 여러 강의에서 수강생들에게 물어본 결과이기도 하다. 수강생들이 ‘다르다’고 답하면 나는 “그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라고 재차 질문한다. 그래야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시 동안의 고심 끝에 비로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과 생물(동물, 식물, 미생물, 세포)은 같은가 다른가, 당신과 무생물(물질, 분자, 원자 등)은 같은가 다른가를 묻는다. 앞선 질문과 대답이 있던 터라 수강생들은 ‘다르다’고 해야 할지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대답해야할지를 망설인다. 그렇다. 역시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는 ‘같음과 동시에 다름’의 존재이고, 원자나 쿼크 수준에서 보면 인간은 텅 빈 공간과도 ‘같음과 동시에 다름’이다. 한마디로 양자의 세계-물질의 세계-생명의 세계-인간의 세계-우주의 세계 모두는 ‘같음과 동시에 다름’으로 구성된 유기체적 공동체라 할 것이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 있다. 그래서 저러한 질문에 우리는 ‘같음’보다는 ‘다름’에 방점을 두고 대답하기가 십상이다. 그것은 인류의 문명사가 뿌리 깊게 간직해온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간들은 그동안 인간만이 이성적 존재이고 생각하고 느끼는 마음을 가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현대에 와서 모두 깨지고 있다. 오늘날 생물학, 유전학, 뇌과학 등의 첨단과학은 ‘생존경쟁 속에 우연히 살아남은 호모사피엔스’라는 다윈의 진화론적 관점이 맞다는 점을 증명해 내고 있다. 또한 상대성이론과 양자물리학, 우주과학 등은 이미 동양의 노장과 불교철학이 직관적으로 발견해냈던 ‘모든 존재는 같음과 동시에 다름으로 구성된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고 있다.

‘다름’만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차별과 지배의 철학이 숨겨 있다. 실제 인간들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인간들은 세계와 인간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수정해야 한다. ‘같음’이라는 점에서 우주 구성원들은 모두가 형제다. ‘다름’이라는 점에서 우주 구성원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한마디로 우주의 모든 존재는 이 세계를 구성하는 아름답게 수놓은 꽃들이다. 인간은 인간 아닌 존재들에 대해 훨씬 더 겸손해져야 한다. ‘같음’을 전제한 후에 인간의 ‘다름’을 논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다름’은 무엇인가? 오늘날 첨단과학들이 저러한 사실들을 발견해내고, 나아가 마치 인간 삶의 모든 문제를 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은 여전히 철학적 존재라는 사실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동물과 인간은 같지만, 동물은 유전적 프로그래밍에 따라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유전적 프로그래밍을 초월하고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 존재이다. 인간은 여전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질문하는 철학적 존재이다. 이러한 질문은 어떠한 과학의 지식으로도 충족될 수 없다.

과학은 이러한 질문을 사유하지 않으며, 오히려 질문 자체를 무의한 것으로 일축해 버린다. 그러나 철학과 인문학은 그런 질문들을 사색하고 모색하는 일을 학문적 존재이유로 삼는다. 대학생활 동안 과학과 전공지식만을 축적하는 메마른 영혼이 아니라 인문고전과 철학 책 몇 권 정도는 읽는 제주대학교 학생이 되기를 기원한다.

동문칼럼

네 안의 가능성을 찾아라

김석범
KCTV제주방송
보도국장
사회학과 86학번

최근 한두 달여간 나는 한 프로그램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가수 지망생 오디션 프로그램 ‘K팝스타 2’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선 심사위원들이 각각 출연자를 뽑아 훈련한 뒤 그 결과로 다시 평가하고, 다음 단계 진출자를 가리는 일을 반복한다.

내가 근무하는 곳이 아닌 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예로들어 의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매주 경연 과정에서 반전 드라마를 연출하는 출연자들의 매력에 나는 어느순간 집중하게 됐다. 중성적이고 어두운 이미지의 한 여성 출연자가 매력적이고 섹시한 여성으로 돌변하더니 어느 순간 프로그램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반주에 맞춰 얌전히 노래 부르던 한 소년은 춤추는 저스틴 비버처럼 변신했다. 그 소년이 부르는 마이클 잭슨의 노래는 내가 익히 들어왔던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여성 출연자가 어느 순간 디바가 돼 있었다. 16세 소녀의 도전은 이후에도 계속됐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매 순간 새로워지는 모습에 나는 다음주를 기대하는 습관에 빠져버렸다. 도시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고 외소하기까지 한 남매는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됐고 광고에도 출연하는 스타가 됐다.

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각은 제각각일 것이다. 매주 새롭게 편곡되는 노래들의 색다른 묘미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심사위원인 보아와 양현석·박진영이 보여주는 리더십을 주목하는 경우도 있다. 나 역시 이같은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하나를 더 본다면 참가자들이 자신의 장점을 살려가는 모습에 주목한다. 처음에는 왠지 덜 세련돼 보이던 모습이 다듬어지고 트레이닝되면서 자신의 색깔을 찾아간다는 것이다. 지금의 대학생활이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한다. 내 자신의 장점 즉 가능성을 찾아가고 살려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면 자신의 장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많은 경험이다. 우리는 일회적 혹은 부분적 경험들을 일반화시켜 그와 유사한 경험 일반을 기피하거나 진실이라고 맹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뇌 구조가 주관적 경험을 일반화 시키고 범주화시키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제대로 검증하려 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과거의 실패나 주변의 부정적 얘기, 적절치 못한 경험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전도차 기피해 버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나 역시 대학생활을 돌아보면 조언을 해 줄 정도의 많은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전은 포기 하지 않았다.

가수지망생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들처럼 일단은 내 안의 장점, 가능성을 찾고 도전을 해보길 조언한다. 그에 더해 적절한 경험이 쌓이게 된다면 분명히 길은 있을 것이다. 보아나 양현석, 박진영과 같은 리더를 만날 수도 있고 그 길까지 가는 방법도 분명히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새가 알을 깨고 나올때는 아프겠지만 알을 깨고 나오면 더 큰 세상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알에서 죽는다’는 고언을 되새기길 바란다.

사범대 독후감 콘테스트 금상 수상작
–<키스 동양의 창을 열다>를 읽고

가슴으로 이해하여 표현하는 태도에 감동

처음 이 책의 제목을 접했을 때는 ‘키스’를 소재로 한 동양의 예술 작품을 설명한 책인 줄 알았다. 그러나 책을 직접 보았을 때 표지에 그려져 있는 인물의 이름이 ‘키스’임을 알 수 있었다. 제목만 보았을 때 오해를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키스’라는 화가는 우리나라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모네, 마네, 고흐 등 유명 화가들만 접해오던 나에게는 더욱 생소한 이름이었다. 평소에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영국 화가가 그린 아시아가 궁금했기에 이 책을 펼쳐들게 되었다. 특히 1920~40년이라 써져 있는 표지에 숫자를 보고 더 관심이 갔다. 그 시기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시기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그림을 제대로 그릴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이 책을 읽게 만들었다.

이 책은 원저 <동양의 창>을 옮겨 쓴 것으로 키스가 동양 각지를 여행하며 언니에게 보낸 편지를 편집한 것이다. 원저의 편집과정에서 편지를 쓴 날짜나 실제 인물의 이름 등 사적인 내용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삭제됐지만 편지라는 형식이 독자들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준다. 나 또한 키스가 자신의 언니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책을 읽는 내내 나에게 온 편지라 생각하면서 더 몰입해 읽을 수 있었다. 중간에 삽입된 그림도 많아서 읽기에 한결 흥미로웠다.

그러나 앞부분의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 키스가 서양에서 태어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양을 좋아하면서도 깔보는 느낌을 받았다. 중국의 방바닥이 더럽다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거나 우리나라 한복의 저고리가 너무 짧아서 우스꽝스럽다고 한 표현을 읽으면서 내심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뒷부분을 읽어나가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지내면서 자신의 혈육인 언니에게 아직 적응하지 못한 낯선 나라에 대해 그 정도의 투정은 부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키스를 이해하게 됐다.

사실 뒷부분에 옮긴이가 쓴 해제 <엘리자베스 키스의 삶과 그림: 한국을 중심으로>를 읽으면서 앞의 내용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책을 다시 한 번 읽으면서 교훈을 얻었다.

키스가 동양의 여러 문화를 접하고 그림을 그리던 시기는 1920~40년대인데 지금은 2013년이다. 나는 지금도 해외여행이라면 설레기도 하지만 무섭고 두려워지는데, 그 당시에 해외를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릴 생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에게는 놀라웠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이국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림을 그렸던 키스의 담대함이 정말 부러웠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새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그녀를 느끼며 나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되었다. ‘나와는 다른 사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보면서 틀리다고 보고 배척하지는 않았나?’하고 말이다.

책의 내용 중에서 키스는 다른 화가들이 낯선 나라에 가서 무작정 그림을 그리는 것과 달리 새로운 그 나라의 문화에 흠뻑 빠져든 다음에야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거치고 나서야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녀는 말로만 겉으로만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한 후에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면은 나의 교육관에 영향을 주었는데 선생님이 학생들과 상담을 할 때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내면적인 것은 이해해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물론 별개의 문제라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글귀를 읽는 순간 나와는 다른 사람, 학생을 이해하고 대할 때에도 키스의 이러한 자세는 본받을 만하다.

비록 미술과 교육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다르게 보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류 작가인 키스의 세계관과 사실적인 그림을 통해 더 잘 알게 된 것도 좋았지만 나의 교육관에 있어서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어 좋았다. 우소영(국어교육과 3)

독자기고

위기의 대학언론 활로찾기 나서야

오현민
언론홍보학과 4

2013년이 시작되자마자 연세대학교에서는 큰 사건이 하나 터졌다. 연세대학교 신문인 ‘연세춘추’의 1면이 백지로 나온 것이다. 광고나 기사 한 자리가 기사 없이 지면 전체가 빈 자리로 나온 것이다.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1면이 텅텅 빈 채였다.

기사는 없었고 대신 학비에 포함되었던 구독료가 사라져서 신문의 정상적인 발행이 어렵다는 설명이 있었다. 학교의 학비에 포함시키기 않고 학생들에게 구독료를 선택해서 납부하게 하니 납부한 학생은 18%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학내언론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광운대학교 방송국은 연세춘추와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교양 프로그램이나 정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는커녕 학내 뉴스를 만드는 것도 힘들어 보였던 광운대 방송국이지만 지금은 어느 대학방송국보다도 뛰어난 질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카메라부터 편집까지 HD 시스템을 갖추었고 기자, PD들의 열정도 뛰어나보였다. 또한 젊은 학생들의 눈에 맞춘 학내 게임대회를 개최하여 게임 중계방송도 하고 있었다. 영상들의 조회 수 또한 기본 100회가 넘어갈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어보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정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되는 글은 대부분 홍보성 글이 차지하고 있고 이마저도 많은 수가 게시되지는 않는다. 필자가 입학하던 2010년은 그래도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학교 자치기구의 소식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던 때였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에 1페이지 채우기도 힘들 정도로 글들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보고 들어가 보는 학교 홈페이지도 이 정도인데 제주대학교의 학내 언론사들의 상황 역시 좋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본 연세대의 사례는 신문이 페이퍼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대학교에서 종이 신문을 꾸준히 읽는 학생은 과연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학생이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하여 주요 기사를 읽고 댓글을 다는 등의 활동으로 사회가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대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JUMP라는 제주대신문, 교육방송, 영자신문 통합 홈페이지가 있지만 홈페이지만으로는 접근성이 부족한 것이 지금 시대의 언론이다. 홈페이지를 넘어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혹은 홈페이지 접속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대학교 언론사에서 작년까지 진행되었던 행사는 JEBS 영상제, 백록문학상 및 학술상, 영어말하기 대회 등이 있다. 이 행사들은 각각 전문분야에 있는 학생들이 아닌 이상은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광운대학교의 사례에서는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임대회를 통하여 남학생들이 언론사 주최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하고 이를 콘텐츠화하여 방송국이 직접 중계까지 하는 일석이조의 행사를 볼 수 있었다. 게임대회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학내 언론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순환버스 노선 알려주는 팸플릿 필요

강다희 / 영어영문학과 2

2012년에 제주대학교에서는 거대한 행사들이 많았다. 그 중 으뜸은 민주주의의 꽃인 학생 선거였다. 총학생회에서는 많은 공약들을 내걸었고 올해는 내건 공약들은 실천하고 있다. 실천 공약들 중에서 제주대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교 내 순환버스 노선 변경’에 관련된 사항이다.

제주대학교는 대한민국에 있는 국·공립 대학교 중 서울대학교 다음으로 큰 학교이다.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제주대학교 내의 순환버스는 1개의 노선으로써 순환버스가 정차하지 않는 많은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만을 해결해주기 위해 순환버스 노선의 변경이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변경된 노선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노선의 변경으로 인해 작년까지 학교에서 생활을 하던 재학생들과 이제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노선들로 인해 일주일 간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 특히 재학생들은 순환버스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버스를 타다 수업에 지각하는 경우가 생김으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불평·불만들이 표출되기 시작하고 있다.

필자 또한 평상시에 타던 순환버스의 시간에 맞게 타고 인문대학으로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인문대학 2호관 앞에서 세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순환버스는 인문대학을 지나쳐 기숙사 앞으로 운행했다. 생각지도 못한 노선변경으로 인해 수업에 늦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황한 필자는 급히 내려 강의실로 부리나케 뛰어갔다.

총학에서 내건 공약 중 눈에 띄게 실천된 공약이 순환버스 노선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과 당황함을 겪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두 가지 노선의 순환버스를 모두 타 본 필자로서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올해 노선이 좋다는 것이다. 솔직히 잘 알려지지 않아서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타다보니 많은 건물을 효율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작년까지 있었던 순환버스의 노선과는 달리 이번에 시행되는 노선들은 캠퍼스 내에 있는 모든 공간을 빠짐없이 돌아서 학생들이 어디를 가든지 불편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버스가 관광버스로 이루어지다보니 더 많은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가려고하는 목적지까지 편하게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공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과는 맞지 않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홍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간 불편함을 겪었다. 학교 내에 있는 정류장마다 순환버스의 노선이 적혀있지만 신중한 신입생들이 아닌 이상 노선을 보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 내에서 토익강좌와 관련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처럼 총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노선변경에 관련된 팸플릿을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해보면 많은 방법으로 알릴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노선변경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80% 학생들의 노선변경으로 인한 불편함의 소리들은 사라질 것 같다.

앞으로 새로운 공약을 실천하면서 기존과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미리 설명해주길 바란다. 새로운 공약을 실천하는 이유는 학우들이 편하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인데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뤄진 공약에 대해 그때그때 알려주는 솔선수범한 총학생회가 되어줬으면 한다.

시사키워드

▶용산개발사업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불리던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 이자 52억원을 내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디폴트란 공·사채, 은행 대출금 등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가 정해져 있는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계약대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킨다. 민간 기업의 경영 부진, 도산 등의 이유로 주로 발생하지만 한 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하는 경우도 디폴트에 해당한다. 디폴트는 통상 부도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부도의 사전적 정의는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까지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결제 요청이 들어온 어음에 적힌 금액을 계좌에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기업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하는 상황도 광의의 부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앞으로 용산개발사업 시행자를 파산시킬 것인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인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파산이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법원의 선고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해주기 위한 일종의 강제집행이다. 만약 사업성이 있고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파산이 아닌 법정관리를 선고하겠지만 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출자사들의 자금여력 부족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콘클라베(Conclave·추기경단 비밀회의)

제266대 교황에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76) 추기경이 선출됐다. 비유럽권에서 교황이 선출된 것은 시리아 출신이었던 그레고리오 3세(731년) 이후 1282년 만에 처음이다. 미주 지역에서 교황이 나온 것은 가톨릭교회 2000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시작됐다. 콘클라베는 라틴어로 ‘열쇠를 잠근다’는 뜻이다.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한 전통에서 콘클라베라는 말이 유래됐다. 과거 교황 선출에 있어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자 보다 지혜롭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추기경들을 한 곳에 감금한 채 빵과 물만 공급했다고 한다. 이후 제도화됐다. 115명의 추기경은 비밀투표를 실시, 3분의 2의 다수결이 나올 때까지 투표를 하고 30번의 투표 뒤에도 교황을 뽑지 못하면 최다득표자 2명이 결선투표를 한다. 투표가 끝난 뒤에는 용지를 태워 연기로 외부에 결과를 알렸는데, 검은 연기는 미결, 흰 연기는 새 교황이 선출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검은 연기, 흰 연기가 뚜렷하지 않아 베드로 광장에서 종소리를 듣고 새 교황 선출을 알수도 있다.

›› 아라해외봉사단 라오스 봉사활동 취재기 (하)

가축·어류 관리 등 차별화된 봉사활동 펼쳐 눈길

불볕더위 속 참가학생들 땀으로 '흠뻑'

문화교류 행사 통해 인류애 나눠

이번 라오스 봉사활동은 지난 2차례의 필리핀 봉사활동과 달리 의료봉사와 노력봉사 외에 새로운 봉사활동을 선보였다. 바로 교육봉사와 기술봉사(가축봉사, 어류봉사)이다.

교육봉사팀(신소희 외 5명)은 학사이 초등학교 80명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씩 수업을 진행했다. 교육팀은 △한국과 라오스 국기 그리기 △수수깡놀이, 바람개비 만들기 △위생교육과 교통질서교육 △비즈공예 △강남스타일 단체 군무배우기 △종이접기 등을 통해 어린이들과 함께 했다.

그 중에서도 강남스타일 단체 군무는 단연 화제였다. 한류의 열기를 학사이 마을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아이들은 물론 동네 어른들은 강남스타일의 멜로디와 춤을 알고 있을 정도였다.

말이 통하지 않아 이따금씩 봉사단원들과 현지 어린이들이 멋쩍은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던 순간이 있기도 했지만 서로의 몸짓으로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신소희(영어영문학과 4)씨는 "현지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몸이 힘들어 고생하기도 했지만 학사이마을에서의 나의 첫 해외봉사는 진정한 사랑, 리더의 자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등을 느끼고 배우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봉사단원들과 아이들은 어느새 쉬는 시간에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함께 하면서 운동장에서 뛰놀고 라오스식 손뼉치기를 하며 서로의 머리를 땋아주는 친구가 돼 있었다.

가축봉사팀은 낮에는 물론 밤에도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가축을 돌봤다. 이번 봉사활동에 이경갑(수의학과) 교수, 양재혁(한국농수산대학 교수) 연구원이 참가했다. 이 마을에 소를 비롯한 가축은 기본적인 구충제도 없어 건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마을의 가축 대부분은 갈비뼈가 살 위로 그려질 만큼 말랐다. 몸 안에 있는 기생충만 없더라도 괜찮아질 수 있지만 구충제 수급도 이곳에서는 쉽지 않다. 가축 봉사팀은 소와 돼지 사육시설 등을 살피며 이 마을의 가축을 돌봤다.

이곳에는 수의사처럼 가축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없다. 그래서 가축 주인이 직접 관리를 하는데 전문적이지 않아 가축의 건강을 돌보기 힘든 상황이다. 소는 축사가 있으나 곡물사료 등 농후사료는 전혀 먹이지 않고 있고 오직 풀 사료만을 먹이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초지에서 급여하는 게 아니라 길가 또는 들판의 잡초들을 먹이고 있다. 건강상태는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곡물사료를 먹이지 못해 체구가 좋지 않았다. 봉사팀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에 주사를 투여하는 등 가축 방목지를 방문해 가축을 치료했다.

또 이번에는 어류기술봉사활동도 함께했다. 이번 봉사에는 이영돈(해양과학연구소) 교수, 허상우(해양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이 참가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어류 생산량 증대를 위해 어류기술봉사팀은 현지 학사이 마을 주변 수원지 탐방과 시장조사 등을 펼쳤다.

현지 주민의 정보를 통해 학사이 마을에서 어류양식에 관한 정보를 습득했다. 이 마을의 어류산업은 여름 우기에 마을 앞 남늠강이 범람했을때 자연적으로 호수로 밀려온 어류를 다음해 건기에 판매하는 형태를 이루었다. 라오스 현지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어종은 대표적 민물고기인 틸라피아다. 가격대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라오스 물가를 감안할 경우 매우 높은 가격이다. 현지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틸라피아의 경우 인근 남능강 주변 가두리 양식장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물가에 비해 높은 판매가격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봉사팀은 인근 양식장을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양식장 시설 및 틸라피아 치어, 먹이 공급용 사료는 모두 태국의 기술력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양식생산단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 또한 양식기술 부족으로 인해 투자에 비해 낮은 수익을 나타냈다.

이번 봉사활동에서 봉사팀은 실질적으로 어류양식에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이번 조사를 토대로 다음 봉사활동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봉사단원들과 현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손으로 하트를 만들며 웃는 모습.(위)
이경갑(수의학과) 교수가 암소에게 주사를 놓고 있다.(아래)

봉사활동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봉사단은 '문화교류의 밤'을 열었다. 이날 저녁부터 열린 이 행사는 아라해외봉사단과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잔치로 꾸며졌다. 또 이날 행사에 허향진 총장이 참석해 봉사단을 격려하기도 했다. 문화교류의 밤에서는 봉사단과 현지 마을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준비한 단체군무, 봉사단의 기증품 증정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 문화교류의 밤 식전행사로 한국에서 본인이 가져왔거나 기증받은 의류 약 10박스 분량으로 옷장터를 열었다. 처음에는 당연이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사장소에 500여명이 있어 무료로 배포하면 코너가 무질서해질 것을 예상해 저렴하게나마 가격을 붙여 판매하고 수익금을 전부 학사이 초등학교에 기증하는 방식을 택하게 됐다. 수익금은 한화 약 27만원으로 현지 액수로는 상당한 금액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도 공짜로 무엇을 얻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신이 지불한 금액이 지역 초등학교에 기증되기 때문에 봉사자들에게도 주민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흥미로운 이벤트가 됐다.

특히 이날 행사의 마지막에는 라오스 전통의식인 바시(Basi)가 진행됐다. 이는 라오스에서는 헤어질 때 손목에 끈을 묶어주며 그 사람의 행복, 행운, 건강 등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봉사단에게 덕담을 건네며 끈을 묶어주자 몇몇 마을주민들과 봉사단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마을 어린이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고 제주에서 가져온 솜사탕 기계로 솜사탕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문화교류의 밤을 열기 전날 시장에서 사온 수박, 사과, 파인애플, 용과를 썰어 시원한 사이다와 얼음을 넣고 화채를 만들어 주민들과 봉사단원들에게 나누어줬다. 마지막 공연으로 교수들을 포함한 모든 단원들이 나와 우리나라 고유의 민요인 아리랑을 합창했다.

단 8박 9일의 여정이었지만 아라해외봉사단과 학사이 마을 주민들은 많은 정을 나눴다. 라오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쉬어 가는 곳이라 불린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곳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갔지만 봉사단은 마음의 치유를 받고 돌아왔다.

김명지 기자

문화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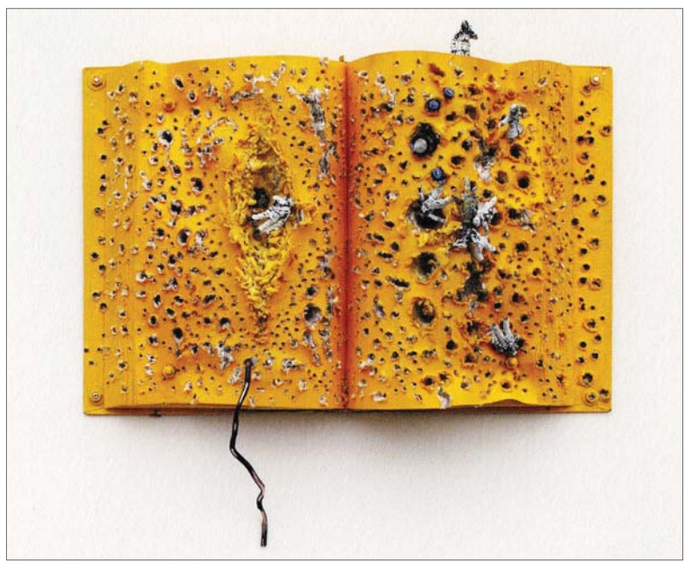
양경식 교수, 세계 미술 중심지 '아트파리 2013' 참가

'역사…자기존재' 연작 8점 출품

양경식(초등미술교육전공) 교수가 오는 27일부터 6일간 프랑스 그랑 팔레에서 열리는 아트페어(ART FAIR·미술견본시장) 아트파리에 참가한다.

아트파리(ART PARIS)는 정형화되고 경직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모든 형태의 예술 장르를 아우르며 세계의 120여개 갤러리와 출판사를 초대해 매년 5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모으는 세계적인 아트페어다. 전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130여 갤러리가 승인을 받고 참가하며, 파블로 피카소, 프란시스 베이컨, 게르하르트 리히터 등 미술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20세기 대표작가들의 작품과 21세기를 대표하는 현역작가들의 작품들이 대거 출품되어 동시대 현대미술의 흐름과 경향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양경식 교수는 터키, 중국 등 10회의 개인초대전과 2006년부터 꾸준히 국제아트페어에 참가하면서 해외에서 명성도 확보했으며, 250여회의 국제전과 기획전, 초대전 등에 참가하면서 독자적인 미술세계를 구축해왔다. 양 교수는 이번 프랑스 아트페어에 갤러리 에이치 에이 앤(H.A.N) 소속작가로참여하며, 'History…S-elf-Existence(역사…자기존재)' 연작 8점을 출품한다.



책 진리의 원전(原典)이라는 오브제를 주재료로 사용. 책을 해체하고 찢어발긴 후 구멍 뚫린 사이사이에 자그마한 병정들의 전투장면을 재현해 놓는다.

김용택 시인, 오는 20일 강연

'제주대문화광장'에 오는 20일 오후 2시 아라뮤즈홀에서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진 김용택 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은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쓰다'라는 주제로 작가와 청중들이 직접 시를 낭독하며 좀 더 깊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김 작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농촌시인이다. 우리의 뿌리이면서 이제는 낯선 풍경이 되어버린 시골 마을과 자연을 소재로 소박한 감동이 묻어나는 시와 산문들을 써 왔다.

김용택 작가는 시인으로 활동하며 전북작가회 회장을 역임하고 전북 임실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등 다방면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